

남가주, 부활의 아침 함께 맞다 2026 연합 새벽예배 드려

2026년 남가주 교계가 부활의 아침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연합 예배를 드렸다.

남가주교협(회장 김은목 목사)은 5일(주일) 오전 6시, 평화교회에서 '2026년 남가주 교계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남가주 교계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예배는 이성우 목사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김은목 목사가 개회사를 전했다. 이어 조준석 목사와 찬양하는 제자들이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며 예배의 문을 열었다. 사도신경 고백과 찬송, 대표기도, 성경봉독이 이어졌으며,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선포됐다.

이날 설교는 최학량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단 회장)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그는 "우리는 죄의 굴레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

원의 길을 여셨다"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활 신앙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오늘을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이제는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할 때다. 선교사가 되지 못하면 선교를 지원하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한다"고 했다.

특별기도 순서에서는 교회와 성도, 나라와 세계 복음화, 그리고 남가주 교계와 캘리포니아를 위해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다.

지용덕 목사는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시고 다시 한 번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목상하게 하시니 감사하다. 연합 사역 가운데 여러 어려움과 고충이 있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했다. 이어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

고 감동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교계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도 있다"고 지적하며 "이럴 때일수록 부활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 위에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

민중기 목사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140여 년 전 대한민국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의 발전과 부흥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역사 속에서도 복음으로 새로운 길을 여셨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선교의 나라, 문화의 나라로 쓰임받게 하셨다"며 "이제 교회가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미국 또한 성령의 새 역사를 통해 경제와 문화, 사회 전반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유의 나라 미국 위에 영성을 더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개혁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했다.

토마스 멩 기자 → 2면에서 계속



이란에서 격추된 전투기 기종으로 알려진 미국의 F-15E 전투기 ©미 공군

미군 '한 명도 남기지 않는다' 원칙 재조명

최근 이란에서 격추된 미군 전투기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한 대규모 작전이 전개되면서, 미군의 오랜 원칙인 "한 명도 남기지 않는다(No one left behind)"는 신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구조 과정에서 사용된 암호 신호가 "God is good"이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군은 적진 깊숙한 지역에 고립된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해 최근 특수부대와 공중전력을 투입하는 대규모 작전을 감행했다. 구조 대상자는 격추 직후 탈출에 성공했지만, 적의 수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장시간 은신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구조팀과 조종

사 사이에 확인용으로 사용된 신호가 "God is good". 이 문구는, 극한 상황 속에서 생존과 구조를 간절히 염원한 구조 대상자의 신앙이 직접적으로 나타난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한 명을 위해 모두가 움직인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전술적 선택이 아니라, 미군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조직 문화의 집약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군은 전통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전우를 버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이는 전장에서의 신뢰와 사기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한 명이라도 버려질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질 경우 전체 조직의 결속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포로가 된 병사가 적의 선전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 그리고 실종자 문제가 국내 정치와 여론에 미치는 영향 역시 이러한 원칙을 강화해온 요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원칙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군사 시스템으로 정착했다. 미군은 격추 조종사나 고립 병력을 구출하기 위한 '인원 구조 체계(Personnel Recovery)'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전담하는 'Joint Personnel Recovery Agency(JPRA)'를 중심으로 특수부대, 정보자산, 항공전력이 통합적으로 운용된다.

이미경 기자 → 12면에서 계속



2026년 남가주 교계가 부활의 아침을 맞아 연합예배를 드렸다.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시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미국 ↔ 한국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러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6년 대박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 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6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교회는 공사비의 40%까지 인센티브 가능(Direct IRS)
BTS SOLAR DESIGN 213.500.8000

목사님, 초청합니다!

예배소서를 설교하는 새로운 관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은 목사님의 효과적인 사역을 섬기려 다음과 같은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바울 신학의 정수라고 불리는 에베소서를 살피면서 에베소서 설교를 공부하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를 살피려 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에 축복된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주제 : 에베소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일시 : 2026년 6월 1일(월) 오전 10시~ 오후 2시
 장소 : 남가주 새누리 교회 (975 S Berendo St, LA, CA 90006)
 대상 : 현역 목회자 20분 모십니다.
 등록 및 문의 : 323-578-7933



강사: 박성근 목사
 남가주 새누리 교회 담임목사
 사우스 웨스턴 침례 신대원 신학 신학 Ph.D

주관 : World Share USA 배니바 사역부

후원 : 미주 침례신문, 기독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LA 동부지역 2026 부활절 “삶으로 부활 증거하자”

2026년 부활절 아침, LA 동부지역 교회 성도들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며 한자리에 모였다.

동부교회협의회(Eastern Korean Church Association, 회장 권혁빈 목사)가 주최한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는 4월 6일 선한청지기교회(송병주 목사) 본당에서 드려졌다.

이날 예배는 SEED교회 권혁빈 목사의 인도로 시작됐으며, 나성한미교회 홍충수 목사가 대표기도를 맡았다. 이어 연합성가대는 부활 찬송으로 예배의 감격을 더했다.

설교는 주님Church 최현규 목사가 요한복음 20장 19~21절을 본문으로 ‘삶으로 증거되는 부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최 목사는 “부활은 단지 죽음 이후의 사



LA 동부지역 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기독교일보

건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의 회복과 절망 속 재기 등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야 할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려움에 문

을 닫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종교적 익숙함과 안락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답장을 허물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삶이 진정한 부활의

증거”라고 권면했다.

봉헌 순서에서는 소프라노 박지민 자매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특송으로 찬양했으며, 브릿

지교회 박진석 목사가 봉헌기도를 드렸다. 이날 모아진 헌금은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돕는 데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선한청지기교회 송병주 목사는 장소 제공에 협력한 당회와 성도들, 연합성가대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예배는 아름다운교회 고승희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동부교회협의회에는 글로벌선교교회, 나성한미교회, 나성한미교회, 늘푸른교회, 동부사랑의교회, 미주새교회, 브릿지교회, 선한목자교회, 선한청지기교회, 아름다운교회, 유니온교회, 좋은빛교회, 주님Church, 주님의교회, 할렐루야한인교회, 행복한교회, 호민교회, 호산나교회, SEED교회 등이 소속돼 있다. **조셉 리 기자**



인랜드 지역, 2026 부활절 연합새벽예배.

부활 신앙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체화하는 것

2026년 부활절 아침, 인랜드 지역 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함께 나누었다. 인랜드한인교역자협의회 주최로 열린 부활절 연합새벽예배는 4월 6일 오전 6시, 미주세한교회에서 지역 교회 성도들이 함께한 가운데 드려졌다.

이날 예배는 언약교회 장수영 목사의 인도로 시작됐으며,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양으로 부활의 기쁨을 고백했다. 이어 인

랜드 ANC 온누리교회 윤창률 목사가 대표기도를 드렸다.

말씀은 인랜드한인교역자협의회 증경회장 류수열 목사가 ‘영원한 소망의 능력’(고전 15: 50-58)이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류 목사는 “부활 신앙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현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능력”이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이 참된 부활 신앙”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성도들은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을 부르며 부활의 영광을 높였다. 이날 헌금은 인랜드한인교역자협의회와 인랜드 지역 은퇴 목회자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예배 후에는 단체 사진 촬영이 이어졌으며, 류수열 목사의 헌금기도와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민선 기자

청소년 리더십 & 진로 멘토십 심포지엄

세계 한민족 여성네트워크 미서부 오렌지카운티 지부(회장 김지현, KOWIN OC)는 5월 2일(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부에나파크 교회에서 ‘청소년 리더십 & 진로 멘토십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AI 시대에 맞는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하는 진로 탐색 프로젝트’를 주제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의 직접 소통하게 된다. “AI 시대의 리더, 텍스트가 아닌

경험으로 증명하라”는 메시지 아래, 학생 주도의 탐색과 실질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멘토로는 크리스 로 교수(홍대 미대 교수), 앤 박 판사(Anne H. Park LA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 임미연 변호사(M. Teri Lim), 프레드 정 폴러틴 시장, 최수지 UC 엘바인 매니저 약사, 윌 장 Intuit 부사장, 채상원 엔지니어링 디렉터, 존 최 마케팅 CEO, 최배선 패밀리 넬스 프랙티셔너 등이 참여한다.

참가 학생에게는 ‘리더십 & 진로 탐색 인증서’가 수여되며, 이후 확장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우수 참가자에게는 상장도 주어진다.

김지현 회장은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자신만의 진로를 만들어가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학부모에게도 자녀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매우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비는 학생 30달러(학부모 10달러)이며, 인증서와 도시락 등 준비를 위해 사전 등록이 필수다. 좌석은 선착순 마감되며,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 QR코드 또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KOWIN 소개

2026. 05. 02 SAT 2:00 PM - 6:00 PM
 Buena Park Church: 7037 Orangewood Ave, Buena Park, CA 90621
 대상: 6-12학년(대학생 환영) 참가비: \$30(부모자 \$10) 간식 및 식사 제공

청소년 리더십 & 진로 멘토십 심포지엄

세계 한민족 여성네트워크(KOWIN)는 대한민국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산하 글로벌 네트워크로, 글로벌 여성 리더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차세대 인재 양성과 한인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미서부 오렌지카운티 지부는 여성 리더십 증진과 청소년 멘토링 등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김민선 기자

→ 1면 기사 <남가주 부활절>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샘 신 목사는 부활의 능력이 현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기도했다. 그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의 은혜에 감사드린다”며 “부활의 영광이 과거의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아침을 기점으로 남가주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람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게 하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 또 “성도들이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캘리포니아 땅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했다.

이날 예배는 남가주교협 연합찬양대의 찬양과 봉헌, 광고, 축도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부활의 소망을 다시 새기며 각자의 사명으로 나아가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평강교회 양육과정
TABLE TALK
 당신을 초대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말씀을 듣는 신앙을 넘어 말씀으로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성경을 삶과 연결해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편안하게 대화하는 말씀 소그룹입니다. 신앙 연수, 나이 상관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 : (213)393-9136(송금관 목사)
 카톡 ID : songkeumkwon
 모임 : 오프라인 & Zoom 온라인

송금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11:00
 주일 성경공부 풍요로운 삶 오전 9:30
 화요 3,3,3기도회 매일 둘째주 오전 10:30
 목요 거리전도 오전 9:00 한인타운
 목요 TEE양육 Zoom 오후7:3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 (213)393-9136 http://pyongkang.com

2026 OC 부활절 연합예배 “부활은 역사의 질서 바꾼 혁명”

2026 오렌지카운티 교계 부활절 연합예배가 “다시 살아나라”(에스겔 37:5)라는 주제로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 OC교협 이사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예배는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최국현 목사, 이사장 심상은 목사)가 주관하고, 오렌지카운티 장로협의회, 목사회, 한인여성목사회, 기독교전도회연합회가 공동주관으로 참여했으며, 미주복음방송, 크리스천헤럴드, CHTV, 미주크리스천신문, 기독교일보, CTS America, 크리스천비전, 사람과 사회(People'n Society) 등이 미디어 협찬으로 함께했다.

이날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는 카리스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됐으며, 조진용 목사(남가주 바인교회 담임, OC교협 부회장)의 기도, 사도신경 봉독, 찬송가 165장 찬양, 김영수 장로의 대표기도로 이어졌

다. 이어 갈보리선교교회 성가대가 ‘거룩한 성’을 특별찬양으로 올렸고, 한성준 집사가 성경봉독을 맡았다.

심상은 목사는 ‘부활과 혁명’(마가복음 16:2-6)이라는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인류 역사 속 가장 근본적인 질서를 뒤바꾼 ‘영적 혁명’임을 강조했다.

심 목사는 “혁명은 단순한 변화나 개혁이 아니라 기존의 질서와 근본 구조가 완전히 뒤집히는 것”이라며,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던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생명의 질서를 세운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부활이 가져온 세 가지 핵심 변화를 제시했다. 첫째, 죄 문제의 해결, 둘째,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소망,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새 예언의 소망이다.

설교 말미에서 심 목사는 성도들에게 부활 신앙을 삶 속에서 실천



2026 오렌지카운티 교계 부활절 연합예배가 갈보리선교교회에서 개최됐다. ©OC 교협

할 것을 역설했다. 또한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선포하는 ‘영적 혁명가’로 살아가

야 한다”며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설교 이후 한기홍 목사(OC교협 증경회장), 최국현 목사(OC교협 회장, BP임마누엘교회), 영킴 의원(가주 40지구 연방 하원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한기홍 목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진정한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며, 부활신앙을 가질 때 세상의 악법과 불의에 맞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음을 역설했다.

최국현 목사는 미국 내 한인 사회의 영향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사모 중창단(지휘 강문수 목사) 헌금특송 “사망 권세 이기셨네”, 윤우경 권사(OC교협 후원 이사장) 봉헌기도에 이어 이사야 목사(OC교협 총무, 뉴스타트교회)가 광고하고, 민경엽 목사(OC교협 증경회장, 나침반교회 원로)의 축도로 OC 교계 부활절 새벽 연합 기도회가 마무리됐다. 토마스 맹 기자

베이커스필드 지역, 부활의 새벽 깨우며 ‘연합과 소망’ 나눠

2026년 부활절을 맞아 베이커스필드 지역 한인 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고 지역 복음화와 연합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베이커스필드 한인교역자협의회(회장 박순종 목사)는 지난 4월 5일(주일) 새벽 6시, ANC 온누리교회(담임 박성호 목사)에서 ‘2026 베이커스필드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를 개최했다.

이날 예배는 박성호 목사(ANC 온누리교회)의 인도로 시작되었다. 이어 총무 안신기 목사(가주목양교회)가 대표기도를 통해 베이커스필드 지역의 복음화와 각 교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간구했다.



베이커스필드 지역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베이커스필드한인교역자협의회

박순종 목사(은혜와진리장로교회)는 요한복음 20장 24-29절을

본문으로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박 목사는 “도마처럼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기보다, 부활하여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확신 속에 거해야 한다”며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신 말씀을 붙들고 베이커스필드의 모든 성도가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예배에서는 베이커스필드 한인교역자협의회 회원 목회자들이 일동 특송을 부르며 연합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 안신기 목사의 광고 후 김준태 목사(지구촌교회)의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쳤다.

교역자협의회 측은 “이번 연합예배를 위해 장소를 제공해주신 ANC

온누리교회 교우들께 감사드린다”며 “베이커스필드 지역의 9개 교회와 목회자들이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베이커스필드 한인교역자협의회에는 사랑의교회(고의용 목사), 지구촌교회(김준태 목사), ANC 온누리교회(박성호 목사), 은혜와진리장로교회(박순종 목사), 가주목양교회(안신기 목사), 한인장로교회(유진수 목사), 산소망교회(이윤형 목사), 중안침례교회(진육화 목사)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달준 은퇴목사가 함께 사역을 돕고 있다.

조셉 리 기자

영락장학회, 2026학년도 장학생 모집

나성영락교회 영락장학회가 4월 30일(수)까지 2026 학년도 장학생을 모집한다. 올해(2026년) 장학금 규모와 수혜 인원을 확대했다. 영락장학금 프로그램은 다음 네

가지 분야에 대한 지원서를 접수한다.

- ▶ 김계용 목사 기념장학금
- ▶ 안나 선교 그룹 장학금
- ▶ 신학교 장학금

▶ 일반 학업 장학금
자격 요건 등 정확한 정보는 웹사이트(youngnakscholarship.org.youngnak.com), 전화(323 - 227-1400), 이메일(scholarship@

youngnak.com, info@youngnakscholarship.org)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1982년에 설립된 영락장학회는 지난 44년 동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성실히 임하며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겨온 학생들을 지원해왔다. 특히 신앙을 삶 속에

서 실천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태도를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미주 한인교회에 등록된 학생으로, 신앙이 성숙하고 학업 성취도가 우수하며 교회 및 지역사회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이다.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주)대원 전자동 시설로 만든 왕김밥 4종
새우튀김 김밥/매운 오뎅 김밥/참치 김밥/야채 김밥
교회 스페셜 무료 딜리버리
10pcs 한줄 \$4.50 60줄 이상 주문가격
주문의 949-330-9033

글로벌감리교회 한미연회 서부지방

GMC는 동성애와 비성경 가치를 말씀의 순종으로 변혁시키기 위해 전세계 약 7,000개 교회가 결단하여 2024년에 창립된 감리교단입니다.

LA 베이직 교회
이선기 담임목사
Tel : 213-255-0521
1304 Cochran Ave, Los Angeles, CA 90019

더힐링 Church
김정두 담임목사
Tel : 949-568-1916
23822 Avenida Sevilla, Laguna Woods, CA 92637

라스베가스 교회
최영완 담임목사
Tel : 702-582-2447
2100 Snow Trail Las Vegas, NV 89134

로렘 교회
이성현 담임목사
Tel : 808-500-0077
290 Sand Island Access Rd, Honolulu, HI 96818

미라클 LA 교회
신병욱 담임목사
Tel : 213-298-3399
3460 Wilshire Blvd, 7 Floor, Los Angeles, CA 90010

새빛 사랑 교회
박유 담임목사
Tel : 469-855-7857
4652 Eagle Rock Blvd, Los Angeles, CA 90041

생수의 강 교회
김영웅 담임목사
Tel : 213-275-1992
463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4

주님의 축복 교회
이태범 담임목사
Tel : 714-902-9292
21209 Claretta Ave, Hawaiian Gardens, CA 90716

주 반석 교회
강현중 담임목사
Tel : 213-235-7659
26231 Silver Spur Rd, Rancho Palos Verdes, CA 90275

미라클 LA 글로벌 감리교회

“모든 족속 제자 삼는 제자공동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공동체”

신병욱 담임목사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오전 10:30
E.M. 예배 오전 10:30
학생예배 오전 10:30
아동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 오후 7:15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Tel : 213-298-3399 (주차비 무료)
3460 Wilshire Blvd, 7 Floor, LA, CA 90010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요한복음 11:25-26)

He is Risen



센터메디컬그룹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힘!

그 중심에 [당신]이 있습니다

건강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의료그룹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생활 문화 활동 활성화

회원 전용 무료 병원 라이드 서비스 제공



문의연락 | (888) 847 - 3098

센터메디컬그룹은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 의료 메디컬그룹 (IPA) 입니다.

美 캘리포니아 '성정체성 비공개' 법 위헌... 60억 원 배상 명령



©pixabay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학생의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 관련 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한 주법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450만 달러(약 60억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로저 베니테즈 판사는 최근 공개된 명령에서 해당 정책에 이의를 제기해 승소한 캘리포니아 교사 및 학부모 측의 변호사 비용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주 정부는 450만 달러 이상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학교 측이 학생이 다른 성으로 정체성을 밝히고자 할 경우, 학부모에게 이를 알리지 못하도록 한 주 정책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제기됐다. 베니테즈 판사는 지난해 말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후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이 해

당 판결을 뒤집었으나, 원고 측은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6대 3으로 베니테즈 판결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결정하면서, 논란이 된 2024년 캘리포니아 법은 무효화됐다.

문제가 된 법률은 학교 직원이나 계약자가 학생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 표현과 관련된 정보를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원고 측을 대리한 토마스 모어 소사이어티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의 피터 브린 부대표는 "450만 달러의 비용 판결은 부모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캘리포니아주는 이 사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약식 판결과 연방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며 "결국 그 비용은 납세자들이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단체의 특별고문인 폴 조나 역시 "이번 판결은 부모를 자녀 양육과 복지에 관한 결정에서 배제하려 했던 주 정부에 맞서기 위해 막대한 노력이 필요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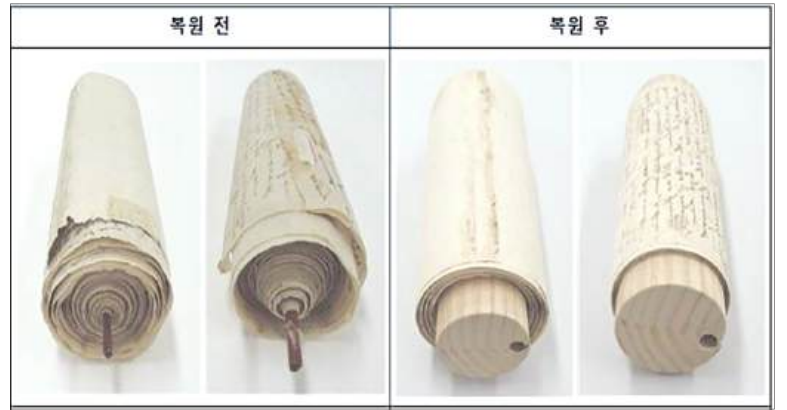
그는 "이번 명령은 캘리포니아의 조치가 위헌일 뿐 아니라 큰 비용을 초래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며 "모든 교육 당국과 공직자는 법원의 판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수 성향 단체 '학부모 수호교육'(Parents Defending Education)이 202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역 1,000개 이상의 학군이 학생의 트랜스젠더 또는 논바이너리 정체성 관련 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거나 제한하는 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논란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한 학생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14세였던 세이지 블레어의 사례를 소개하며, 학교가 부모에게 성전환 의사를 알리지 않았고 이후 해당 학생이 가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일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어떤 주도 부모의 의사에 반해 자녀의 성별 전환을 추진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관련 정책의 즉각적인 금지를 촉구했다. 이명경 기자

로제타 홀 두루마리 편지 공개... 19세기 조선 의료·생활상 확인



복원된 로제타 홀의 기행편지. ©국가기록원

9세기 말 조선의 생활상과 의료 현실을 담은 두루마리 형태의 장문 편지가 복원을 거쳐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가기록원은 제54주년 보건의 날을 맞아 양화진기록관이 소장한 '로제타 셔우드 홀의 두루마리 기행편지'를 복원해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두루마리 편지는 미국인 의료선교사 로제타 셔우드 홀이 1890년 9월 미국을 출발해 조선에 도착하기까지 약 4개월간의 여정을 가족에게 전하기 위해 작성한 기록이다.

해당 편지는 낱장 94매를 이어 붙인 두루마리 형식으로 제작됐으며, 전체 길이는 약 31.8m에 달한다.

◆**향해 여정과 조선 생활상 생생 기록**

두루마리 편지에는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호놀룰루와 일본을 거쳐 조선에 도착하기까지 약 40일간의 향해 과정이 상세하게 담겼다.

특히 조선 도착 이후 약 3개월 동안의 기록에는 당시 열악했던 의료 환경과 주민들의 생활상이 구체적으로 묘사돼 있어, 한국 근대 의료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

된다.

또한 전통 한옥 형태의 진료소인 보구녀관의 모습과 가마, 혼례 장면, 고종 사절단 행렬 등 로제타 홀이 직접 촬영한 사진 59점이 함께 포함돼 당시 사회상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훼손된 기록물 18개월 복원 작업**
해당 두루마리 편지는 희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훼손 상태에 놓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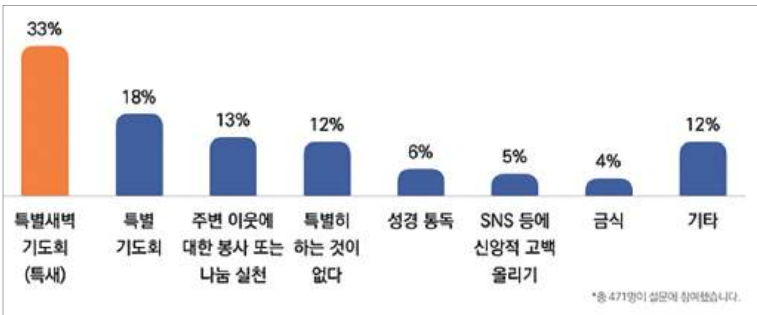
아이언 겔 잉크의 부식과 비닐테이프 변색으로 종이와 바스라지는 등 손상이 진행됐으며, 기록물이 지름 0.3cm의 나무축에 약 32m 길이로 말려 있어 꺾임과 접힘이 반복된 상태였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약 18개월에 걸쳐 오염물질 제거와 탈락된 글씨 보강 작업을 진행하고, 말림 횟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향후 열람과 연구, 전시 활용을 위해 고해상도 스캐너를 활용한 디지털화 작업도 병행했다.

한편 복원된 두루마리 편지 원문은 소장처인 양화진기록관과 국가기록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승연 기자

지난 사순절, 주로 기도하며 십자가 묵상한 한국교회



"다음주 고난주간(3/30~4/4)을 앞두고 목사님 교회에서는 어떤 신앙 실천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모두 체크해 주세요"에 대한 답변 비율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는 지난 사순절 기간, 주로 기도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절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는 지

난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목회자 471명에게 '교회에서 고난주간을 앞두고 어떤 신앙 실천을 계획하는지'를 물어, 그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새벽기도회(특새)'가 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특별기도회'(18%)가 뒤를 이었다. 목데연은 이에 대해 "고난주간의 전통적인 영성 훈련 방식인 기도 사역이 여전히 목회 현장의 주된 흐름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기도 외 실천 사역으로는 '주변 이웃에 대한 봉사 또는 나눔 실천'(13%)이 3

위로 나타나, 그리스도의 고난을 사회적 섬김으로 연결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고 목데연은 덧붙이기도 했다.

기타 의견(12%)으로는 성경필사,

묵상노트 작성과 같은 개인적 경건 훈련과 더불어, 탄소 금식, 헌혈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실천적 사역들이 언급됐다고 한다.

김진영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고승희, 김영길, 김중연, 김한요, 류종길, 민중기, 박기호, 송정명, 신성욱, 이상명, 이종용, 임성진, 정우성, 진유철, 한기홍

자문위원
강태광, 고광선, 고창현, 구경모, 구봉주, 국윤권, 김중규, 류용렬, 박은성, 박일서, 오명찬, 우영화, 최현규, 한현중, 써니킴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폴킴
편집국장 : 맹창현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E-mail : chdaily@daily.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생명을 살리는 텔로유스 퇴행에서 재생으로! 노화에서 역노화로!

주요 라디오 · 신문이 주목한 텔로유스(TeloYouth) 젊음회복 프로그램

LA 라디오코리아, 라디오서울, 우리방송, CBS 기독교TV, NY 라디오코리아, NY K라디오, 아틀란타 라디오코리아 등 주요 방송사와 중앙일보, 한국일보, 뉴욕일보, 타운뉴스, 교차로, 밸리뉴스 등 주요 신문사가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젊음 회복 기술, 텔로유스를 소개합니다.



퀀텀 젊음회복 6개월 프로그램
패키지 \$2,478



프로모션
\$2,478 패키지 구매시
텔로유스 파우더 한병(\$300)

건강의 '마스터 키', 줄기세포

텔로유스는

우리 몸의 골수에서 줄기세포 배출을 최대 3,600%까지 유도하는 10년 이상 앞서간 세포신호(Cell Signaling) 기반의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로, 몸 전체의 구조적 균형, 기능적 회복, 그리고 감정적 체계까지 근본적으로 되살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텔로유스의 핵심 특징

10년 이상 앞서간 최첨단 생명공학 세포신호 기술
골수에서 줄기세포 배출 최대 3,600% 유도
온몸의 구조 · 기능 · 감정 체계까지 재생 & 회복

12가지 국제인증마크와 제3기관 임상실험들, 그리고 수많은 체험사례들이 텔로유스의 퀀텀 젊음회복 프로그램을 증명합니다!

- Dr.D**Kim님: 갑자기 찾아온 전립선4기암 진단은 60여년간 의사생활을 해온 나에게도 실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음회복프로그램을 통해 전립선암수치를 측정하는 PSA가 400에서 209, 1.5, 0.8로 떨어지는 기적을 맞보았습니다. 또한 항반병성이 좋아진 것은 신경과 전문의로서 가히 우리몸에서의 줄기세포가 불가능하다는 신경세포도 되살릴수 있음을 확인해주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 Dr.J**Park님: 22년간 가정주치의로 많은 환자들을 돌보았지만 정작 내 자신의 혈당은 약으로도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높은 혈당으로 인해 다리부종이 심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혈당이 조정되며 붓던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A1C 가 8.1에서 7.3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이**님: 심장수술, 척장암수술에 이어 두번의 뇌졸중이 오며 워커로 겨우 걷던 것이 지금은 혼자 걸을 수 있고, 물조차 입으로 먹을수 없어 G-tube를 낀 채 생활한지 1년이 넘었는데, 젊음회복 프로그램 5개월째인 지금, 조금씩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 다시 음식을 먹을 수 있는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 S**님: 친구들이 보톡스 맞았냐고 물어봅니다. 70대에 얼굴이 이렇게 밝아지고 팽팽할 수 있을까 거울보는 것이 행복합니다.
- J**님: 지난 40여년 사용해오던 십여가지 약에 의지하지 않아도 하루 생활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 이**님: 부끄러워서 숨기고만 있었던 발톱무좀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 W**님: 20년간 복용하던 우울증약을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정**님: 불면증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날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 D**님: 70대이지만 동창회가면 제일 젊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날마다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 레**님: 90대에도 소일로 발일하시며 마을에서 제일 건강하시다는 저의 노모의 건강은 텔로유스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 F**님: 공황장애 약에 의지하지 않고도 많이 편해지고 자유로와졌습니다.
- R**님: 갱년기 증상들이 다 없어졌어요, 늘 피곤하면 나타났던 구순염도 이제는 더이상 나오지 않네요
- S**님: 평생 고생하던 천식때문에 기침을 달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너무나 멀쩡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 하*님: 무기력함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뽐뽐 솟습니다.
- **자님: 80대에도 고운 피부와 젊은 에너지로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 J**님: 10년동안 고생하던 혈당조절이 이제 정상으로 잘 됩니다.
- N**님: 딸인 저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던 엄마가 저를 알아보세요, 이걸 기적입니다!

그 외 수많은 체험사례들을 www.TeloYouthKorean.com 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임상실험 Clinical Studies
인지기능 46.2% 향상/줄기세포배출량 377%. University of Miami
우울증개선 Blefgeil Hospital, Kongsberg, Norway
스트레스호르몬 50%까지 감소. University of Trier, Germany
성욕구/만족도 University of Trier, Germany
근육량 증가 University of Colorado



이런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 120세까지 건강하고 젊게 사시고 싶은 분들
- 역노화 (Reverse aging) 기술력으로 10년이상 젊어지고 싶은 분들
- 밤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들/ 기운 없고 늘 피곤함
- 각종 염증으로 늘 고생함/ 스트레스를 못 이겨냄/ 의욕이 없고 우울함
- 장 트러블/ 소화력이 떨어짐/ 눈이 건조하고 침침함
-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짐/ 혈당조절이 힘들/ 통증에 시달림
- 몸의 여러 구조와 기능들이 만성적으로 고장나 고민하고 계신분들

줄기세포 건강사업 코치 모집

21세기 세포신호 기술 기반 젊음회복 프로그램
■ 세포신호 기술력 독점, 재구매율 91%
■ 코치 교육 시스템 제공
■ 월 \$10,000 이상 수입 가능

문의: 레이첼 건강 수석 코치

☎ 714-851-8035



TELOYOUTH

www.TeloHealing.com

김한요 목사 “목회의 끄트머리에서 암에 걸리니까...”

현지 시간 지난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담임 손정훈 목사)에서 '2026 USA 애틀랜타 디아스포라 다니엘 기도회'가 개최됐다.

디아스포라 한인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 1998년 시작된 디아스포라 다니엘 기도회는 현재 1만 6천 여 교회와 전 세계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연합운동으로 성장했다. 올해 디아스포라 다니엘기도회는 김은호 목사, 이성미 집사, 조용갑 집사, 노진준 목사, 안재우 소장, 김한요 목사, 하준파과(유튜버)가 차례로 강단에 올라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다. 기도회 여섯째 날인 27일 강단에 오른 김한요 목사(앨버틴 베델교회)는 '별도 보이지 않는 밤에'(사도행전 27:20-32)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로마로 호송되던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며 파선의 위기를 겪는 사건에 대해 나누며, 작년 크리스마스 당일 폐암 진단을 받을 당시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한 '광풍'과 그가운데 찾아온 영적인 깨달음에 대해 나누었다. 이날 김한요 목사는 라디오 방송 '별이 빛나는 밤에'의 시그널 음악과 함께 등장했다. 그는 "별이 깜깜하고 별도 안 뜨는 밤을 경험해 보셨나요?"라는 질문으로 설교의 문을 열었다.



김한요 목사(앨버틴 베델교회) ©다니엘기도회 영상 캡처

황에 대해 설명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광풍이 큰 풍량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행 27:20) 이 상황에서 바울이 배에 타고 있던 이들에게 전한 예언,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21-22절)를 언급하며, 바울이 배가 파선되는 가운데서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사람을 유용한 존재로 빚어가신다고 하며, 하나님은 칠혹같은 어둠 가운데 등장하신다고 말했다. "어떻게 별이 보이지 않던 그 허리케인이 불던 그 험한 밤바다에서 사도 바울은 그 밤바다에 별을 띄우기 시작했을까? 저는 어이 고난이라고 하는이 밤에 칠혹 같은 밤에 항상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때문이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밤에 등장하세요. 태풍이 불 때 등장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등장하는 입장 음악이예요." "칠혹같은 어두운 별도 뜨지 않는 밤에 하나님은 드디어 나를 일대일로 만나기 위해서 등장하신다. 옆에 사람이 있어도 어두움을 대신해 줄 수가 없다. 제가 고스란히 당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가 말씀을 전하면서 울컥하는 순간이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 말했다. "정확히 저는 두 달 전에 폐암 수술을 받았다. 저는 암센터를 보면, 성도들 신방하러 가는 것이지, 거기에 제가 암 환자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수술 받기 위해서 갈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저는 새벽기도가 끝나면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트레일을 한 3마일 걷는다. 체력이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제가 폐암에 걸렸다. 작년

크리스마스 날에 폐암 판정을 받고, 예배를 끝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날뛰기 시작했다." "500명이 금식기도를 해주고, 가족들이 같이 기도를 해주는데, 대신 폐암을 앓아줄 사람이 없었다. 전도사 시절까지 합하면 4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 목회의 끄트머리에서, '이정도면 됐겠다' 싶었는데, 암에 걸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일대일로 만나게 됐다." "고난 중에서 주님과 공통분모가 생기기 시작한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다. 우리의 아픔을 그냥 혀를 차면서 아우안 됐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sympathy'(동정과 연민)가 아니라 'empathy'(대상과 하나 되어 '감정이입'을 해서 '공감'한다는 뜻)이다."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고문당하시고 매맞으시고 피를 흘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향해 가는 길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기름부음의 방법이다." 그러면서 목회의 슬럼프를 겪을

때마다 떠올리는 중국 지하교회 목회자 안수식의 기억에 대해 나왔다. "목회의 슬럼프가 찾아올 때면, 제가 생각하는 사건이 있다. 제 선배 목사님이 중국선교를 가셨기 때문에, 제가 중국 선교를 25년 동안 계속했다. 그래서 매년 여름마다 중국에 가서 격려를 하고 사역을 하고 오는데, 지하 신학교 졸업식에 참가했다. 지하교회 사람들 몸에 전부다 상처가 있다. 어떤 목사님은 등을 보여주는데, 몽둥이로 맞아 허리가 부러져서 항상 지팡이를 짚고 목회를 하고 계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배들이 졸업한다고 20시간을 차와 기차를 타고 오셨다." "여름에 조그마한 보울룸을 빌려서 졸업식을 하는데, 선배들이 격려하며 축하곡을 부른다. 중국 CCM을 신나게 부르는데, 문제는 거기에와 있는 모든 하객들이 다 울었다. 옆에 마침 선교사님이 앉아 계시어서, 번역을 부탁드렸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도 울면서 앞에 있는 종이에다가 가사를 쓰셨다. '나가 죽으라, 예수를 위하여' 선배가 신학교 졸업식와 가지고 후배들에게 이제 목회자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나갈 그 친구들에게 격려를 하는데, '나가 죽으라. 예수를 위하여'라는 노래를 부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고난이 오면, 고난을 없애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 고난도 괜찮다." 주디한 기자

예배 중 쓰러진 30대 가장, 장기기증으로 7명 생명 살리고 하늘로

심장·폐·간·신장·안구 기증으로 생명나눔 의미 전해



기증자 김겸씨(맨 오른쪽)의 생전 모습과 그의 가족들의 모습. ©뉴스시스

교회 예배 중 갑작스럽게 쓰러진 30대 가장이 뇌사 장기기증을 통해 7명에게 새 생명을 전하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2월 20일 인제대일산백병원에서 김겸(38)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7명의 생명을 살리고, 인체 조직기증

을 통해 100여 명의 환자가 기능 회복의 희망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2월 13일 교회 예배에서 베이스를 연주하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의료진이 집중 치료를 진행했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뇌사 상

태에 이르렀다. 이후 가족의 동의로 심장과 폐, 간장, 양측 신장과 양측 안구를 기증했으며, 피부와 뼈, 연골, 혈관 등 다양한 인체 조직도 함께 기증했다. 이번 장기기증을 통해 여러 환자들이 생명을 이어갈 기회를 얻게 됐다. 생명나눔 실천한 30대 가장의 선택 가족들은 김씨가 이미 오래전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통해 생명나눔 의사를 밝혔던 점을 떠올리며 기증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2007년 기증희망등록을 하며 생명을 나누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며, 가족들은 그의 뜻을 존중해 장기기증에 동의했다. 가족들은 많은 사람들이 김씨의 결정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 김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 안에서 삶을 살아온 인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그의 선택이 많은 생명을 살

리는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고 설명하며 자녀들이 훗날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기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나 밝고 따뜻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세심하게 챙기던 인물이었다.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성장했으며 한때 목회자가 되기를 꿈꾸며 신학대학에 진학하기도 했다. 이후 물류 분야에서 근무하며 최근까지 지방 회사에서 물류 업무를 담당해 왔다. 가족과 교회를 사랑했던 삶, 마지막까지 이어진 나눔 김씨는 교회에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으며 세 자녀를 둔 아버지였다. 평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으며 회사 일을 마친 뒤에는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주말에는 교회 찬양팀에서 활동하고 주일학교 교사

로 봉사하며 신앙 공동체 안에서 꾸준히 섬김의 삶을 이어왔다. 김씨의 아내 손주희씨는 남편을 향한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깊은 슬픔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손씨는 남편이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하기를 바란다며 남편이 남긴 사랑을 기억하며 자녀들을 잘 양육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계속 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이번 장기기증이 생명나눔의 의미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기증자의 뜻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예수 부활하셨네

인랜드교회

예배시간 안내

- 1부예배 오전 7:3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30
-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 EM 1부예배 오전 9:30
- EM 2부예배 오전 11:30
-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최원일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inlandchurch.org

예수 부활하셨네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예배시간 안내

-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 EM예배 오전 11:00
- 수요일예배 오후 7:00
-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영 청년층 '무종교화 고착화' 논쟁 확산, 인본주의 단체·성서공회 엇갈린 해석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YouGov)가 '조용한 부흥(Quiet Revival)' 보고서 데이터를 철화한 지 며칠 만에, 영국 청년층의 무종교 정체성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의 세속 인본주의 단체 휴머니스트(Humanists) UK는 사회조사를 위한 내셔널센터(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가 2024년 9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한 '영국 사회 태도 조사(BSA)'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총 4,120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16~34세 청년층의 61%가 자신을 '무종교'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종교 가정에서 성장한 이들 가운데 94%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같은 정체성을 유지했으며, 같은 집단에서 기독교를 선택한 비율은 4%에 그쳤다.

휴머니스트(Humanists) UK는 "무종교 정체성은 청년들이 일시적으로 거치는 단계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세계관"이라고 주장했다.

단체 회장 자넷 엘리스는 성명을 통해 "젊은 세대는 종교적 틀 없이도 가치 중심적이고 성장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이를 자신감과 기쁨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종교'라는 표현은 단순한 결핍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진리를 탐구하고 인간관계와 삶의 경험 속에서 의미를 찾는 적극적인 삶의 방식"이라며 "오늘날 영국에서는 신 없이도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인본주의가 점점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영국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무종교로 자신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어린 시절부터 종교 없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머니스트(Humanists) UK는 또 "젊은 세대에서 성공회(Church of England) 정체성이 사실상 붕괴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75세 이상에서는 21%가 성공회 신자로 응답한 반면, 16~34세에서는 해당 비율이 2.6%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성공회 정체성은 10.7%로 감소했다.

이번 분석은 앞서 성서공회(Bible Society)가 발표한 '조용한 부흥' 보고서와

상반된 결과로 주목된다. 해당 보고서는 일부 지역에서 청년층 교회 출석 증가를 근거로 신앙 회복 조짐을 제시했으나, 유고브(YouGov)는 최근 데이터 재검토 과정에서 일부 응답이 허위로 확인됐다고 이를 철회했다.

휴머니스트(Humanists) UK의 앤드루 콕슨 대표는 해당 보고서에 대해 "처음부터 신뢰하기 어려운 결과였다"며 다른 조사 및 성공회·가톨릭 교회의 출석 통계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BSA 조사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영국이 이미 무종교 다수 사회로 전환했으며 젊은 세대가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의회와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이 실제 영국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성서공회(Bible Society) 측은 무종교로 응답한 청년층이 반드시 영적 실패까지 부재한 것은 아니며 신중한 해석을 요구했다. 단체는 최신 보고서 "The Quiet Revival one year on"을 통해 교회 출석을 축적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영국에는 교회 출석에 대한 포괄적 통계가 없고, 교단별 집계 방식도 일관되지 않으며, 온라인 예배 확산 역시 정확한 측정을 어렵게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가톨릭교회와 성공회 모두 코로나19 이전보다 출석 수는 줄었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4년 가톨릭교회에서는 7세 이상 세례 건수가 21% 증가해 최근 11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성인 첫 영성체 참여자도 4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회 역시 2024년 청소년 및 성인 세례가 전년 대비 11.5% 증가했고, 견진성사도 5.3% 늘었다. 또한 복음연맹(Evangelical Alliance)은 2025년 조사에서 평균 13%의 출석 증가를 보고했으며, 오순절 교회는 2000년 2,500개 교회에서 2020년 4,200개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기독교 출판사 SPCK Group은 2025년 성경 판매가 급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출판 디렉터 로렌 윈들은 이러한 현상이 젊은 세대의 관심 증가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이미경 기자

시리아 종파 폭력 사태로 기독교 부활절 행사 전면 취소



©Pixabay

시리아 내 기독교 공동체가 최근 발생한 종파 간 폭력 사태로 인해 올해 부활절 행사를 전면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중부 도시 수카일라비아에서 발생했다. 사건은 인근 지역 출신 무슬림 남성 2명이 기독교 여성들을 괴롭히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항의한 기독교 남성들이 이들을 마을 밖으로 쫓아냈으나, 이들은 이후 수십 명의 무장 인원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 돌아오면서 충돌이 격화됐다.

폭력에 가담한 무리는 성모 마리아를 기리는 지역 성소를 파괴하고 상점과 주택, 차량 등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안 당국 관계자들이 이번 공격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시리아 정부는 알카에다 계열 조직 출신 세력이 주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종교 공동체의 권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10년 이상 지속된 내전으로 인해 다양한 무장 단체가 난립하면서 이러한 약속을 실질적

으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정부군이 개입해 추가적인 공격을 저지하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폭력 사태의 여파로 가톨릭, 그리스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등 주요 기독교 교단은 예정됐던 부활절 행사를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기독교 시민단체 '시리아 평화를 위한 기독교인들'은 성명을 통해 "모든 종교 및 민족 공동체가 단결해 종파주의와 분열을 거부해야 한다"며 "시리아 정부는 진지한 국가적 대화에 착수하고, 책임 규명과 과도기적 정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종파주의와 증오 발언을 범죄화하는 입법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동 전반의 갈등 상황은 이스라엘에서도 부활절 행사 취소로 이어지고 있다. 현지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정부의 보다 강화된 규제 조치 아래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기독교 인권단체 '세계기독교연대(CSW)'의 창립자 머빈 토머스는 이번 폭력을 강하게 규탄했다.

그는 "시리아 당국이 극단주의와 증오 발언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내부 인사를 포함해 수카일라비아 공격에 가담한 모든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 역시 시리아 정부가 모든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섬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스나무리를 늘 부르며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세세대에 오전 9:15) 새벽예배 (월-토) 오전 5시
3부예배(세대예배) 오전 11:30 (화-토) - 오전 6:0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종교기도회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며, 선교영광을 승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ga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예배 &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L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새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5부예배 오후 3:30 비전센터
주일6부예배 오후 5:30 비전센터
주일7부예배 오후 7:30 비전센터
주일8부예배 오후 9:30 비전센터
주일9부예배 오후 11:30 비전센터
주일1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11부예배 오후 3:30 비전센터
주일12부예배 오후 5:30 비전센터
주일13부예배 오후 7:30 비전센터
주일14부예배 오후 9:30 비전센터
주일15부예배 오후 11:30 비전센터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삼위일체와 성령의 열매로 이루어진 성령의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교회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사랑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온라인

김형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교회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일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중 담임목사

LA장로교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9: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 오전 6: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후 7:0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choonghyun.org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김은광 목사 백승유 목사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1060 Crenshaw Blvd(2F), L.A, CA 90019
T. (323)610-6989, www.woorigachurch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형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윤성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시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가명훈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창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정유성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은라인) 5:30am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org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헌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이우호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밸리구국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지영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토요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아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말론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원부 오후 2:30

얼바인은누리교회

다듬새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진교인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받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김중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월/수/금) 새벽 6:00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교회학교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영아유치부, 원동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영어유치부, 원동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부흥회 토요일 오전 6: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매달 마지막 금요일)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유영담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신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5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구경모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최원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 / inlandchurch.org

트럼프 대통령, 부활절 메시지 “악과 사악함은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2026년 부활절 영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Screenshot/YouTub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활절을 맞아 미국과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전하며 “악과 사악함은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요한복음을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기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구절을 언급하며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수백만 기독교인들이 이번 부활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악과 사악함은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이라는 세 가지 핵심 순간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분의 삶은 참된 겸손을 보여주었고, 죽음은 참된 사랑을 드러냈으며, 무덤에서의 부활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을 죽음조차 침묵시킬 수 없음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미국 내 신앙 회복을 강조

하며 “미국에서 신앙과 종교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 더 젊고 더 신실한 신자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종교가 다시 성장하고 있다”며 “위대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종교와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의 공동 명의로 별도의 부활절 서면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를 주이자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속의 약속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확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의 능력을 통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으며, 악과 죽음은 영원히 정복됐다”고 선언했다. 또한 이사야서를 인용해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구절을 소개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설명했다.

성명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승리를 이루었고, 그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그의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나이지리아 연합감리회, 세계감리회와 재산 분쟁 승소

나이지리아 법원이 교단 등록과 자산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세계감리회(Global Methodist Church, 이하 GMC) 대신 연합감리회(United Methodist Church, 이하 UMC)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이번 판결이 교단 정체성과 법적 권한을 둘러싼 갈등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라고스에 본사를 둔 ‘더 네이션’(The Nation)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고등법원의 오비오라 에그와투(Obiora Egwuatu) 판사는 최근 기업등기위원회(CAC)에 ‘나이지리아 UMC’를 ‘나이지리아 GMC’로 변경한 결정을 번복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에그와투 판사는 제니스은행에 대해 “GMC가 해당 은행에 보유한 계좌의 관리권을 즉시 UMC 측에 반환하라”고 지시했다. 법원은 CAC가 ‘회사 및 관련 사항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인 명칭과 이사 변경에 필요한 공식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에그와투 판사는 “협회 구성원은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지만, 단체의 이름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공동체를 떠날 수는 없다”고 밝히며, 교단 운영은 정해진 질서와 절차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단 내부의 결사와 탈퇴는 해당 단체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나이지리아 UMC 교구장 안데 에마누엘(Ande Emmanuel) 주교는 이번 판결 이후 성명을 내고 갈등을 넘어선 화해와 회복을 촉구했다.

그는 “지금은 축하할 때가 아니라



▲나이지리아 연합감리교회 안데 에마누엘(왼쪽) 주교. ©UM 뉴스

치유할 때”라며 “나이지리아 UMC와 GMC 간의 깨진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형제자매들에게 화합의 손길을 내민다”며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환영하며, 다른 길을 선택하더라도 대화를 통해 평화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분쟁의 배경에는 UMC 내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신학적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동성결혼 축복과 동성애자 목회자 안수 문제를 둘러싼 이견은 교단 내 깊은 균열을 낳았다. 과거 총회에서는 관련 규정 삭제 시도가 있었으나, 아프리카 지역 대표단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결국 2024년 총회에서 관련 규정이 삭제되면서, 특히 보수적인 신앙 전통을 지닌 아프리카 교회들 사이에서는 큰 반발이 일었고 일부 교회와 지도자들은 교단 탈퇴를 선택하게 됐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동성 결혼과 동성 간 성행위가 불법이며, 시민의 동성애 단체 활동 또한 금지돼 있어 이러한 변화에 대한 반발이 특히 거센 상황이다.

2024년 7월 존 웨슬리 요한나(John Wesley Yohanna) 주교는 특별 소집 회의를 통해 일부 지역 교회가 UMC를 탈퇴하고 GMC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UMC 측은 실제 탈퇴 규모가 전체의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를 반박했다.

강혜진 기자

美 MZ세대, '영적 부흥' 가능성에 더 낙관적... 청년층 증가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기성세대보다 향후 영적 부흥 가능성에 대해 더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동시에 청년층에서 기독교 수용이 증가하는 흐름도 확인됐다.

바나 그룹(Barna Group)이 글루(Gloo)와 공동으로 진행한 '2026 교회 현황(State of the Church)' 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과 Z세대는 향후 미국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날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는 1999년 이후 출생한 성인층을, 밀레니얼 세대는 1984~1998년 출생자를 의미한다. X세대는 1965~1983년생, 베이비붐 세대는 1946~1964년생으로 분류된다.

바나(Barna) 최고경영자 데이비드 키너먼은 "이번 연구가 부흥을 예측하는 것은 아니며, 응답자들에게 부흥에 대한 구체적 정의도 제시되지 않았다"면서도 "많은 미국인들이 부흥 가능성을 믿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는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러한 믿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이나 습관이 아닌, 불안과 고립, 사회적 혼란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으려는 진정한 동기로 신앙을 향하는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며 "이들의 탐색에 교회가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에 따르면 '향후 12개월 내 미국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Z세대의 38%가 '확실히' 또는 '아마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X세대(29%), 전체 성인 평균(29%), 베이비붐 세대(28%), 밀레니얼 세대(25%)보다 높은 수치다.

또한 2025년 10월 실시된 추가 조사에서,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본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기도'를 가장 많이 꼽았다. Z세대와 밀레니얼 모두 43%가 이를 이유로 제시했다.

'젊은 세대의 신앙 회귀'를 이유로 든 비율도 Z세대 38%, 밀레니얼 40%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탐색'은 각각 34%, 38%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하나님 체험'(Z세대 38%, 밀레니얼 37%), '하나님에 대한 갈망'(각각 31%, 36%), '기적'(각각 32%, 30%) 등이 주요 요인으로 언급됐다.

경제적 요인 역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Z세대의 33%, 밀레니얼의 34%는 경제적 어려움이 부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실제 역시 각각 29%, 26%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Z세대의 42%가 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응답해 밀레니얼(32%)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불안 문제 역시 Z세대 35%, 밀레니얼 30%가 영향 요인으로 꼽았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봉쇄 조치를 원인으로 지목한 비율은 Z세대 16%, 밀레니얼 18%였으며, '세속주의 약화'를 이유로 든 비율은 밀레니얼(16%)이 Z세대(11%)보다 다소 높았다.

또한 '신과 유사한 인공지능의 등장'이 부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본 비율은 Z세대 14%, 밀레니얼 15%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다른 조사와도 일부분 일치한다.

바나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Z세대와 밀레니얼은 기성세대보다 월간 교회 출석 빈도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는 월 평균 1.9회, 밀레니얼은 1.8회 교회를 찾은 반면, X세대는 1.6회, 베이비붐 세대는 1.4회에 그쳤다.

또한 바나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개인적으로 결단했으며, 그것이 지금도 중요하다"는 문장에 동의한 밀레니얼 남성 비율이 2019년 52%에서 2025년 71%로 증가했다. Z세대 역시 같은 기간 52%에서 67%로 상승했다.

최승연 기자

아메리칸 아이돌 '믿음의 노래' 무대에서 찬양과 선포 이어져



▲캐리 언더우드와 출연자들이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아메리칸 아이돌

미국의 대표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칸 아이돌' 무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담대히 선포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밤(이하 현지시간) 방송된 '믿음의 노래'(Faith Songs) 특집에서는 부활절을 앞두고 참가자들이 신앙을 주제로 한 곡들을 선보이며 전국 시청자들에게 예배와 같은 시간을 전했다.

이날 방송에는 상위 14명의 참가자들이 복음성가와 찬송가를 비롯한 다양한 신앙고백의 노래를 무대에 올렸다. 공연 전반에는 기도와 찬양,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감동을 전했다. 심사위원 라이오넬 리치(Lionel Richie)와 루크 브라이언(Luke Bryan)은 참가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를 부르며 무대의 문을 열었고, 어린 설교자로 알려진 루크 킬먼(Luke Tillman)은 기도로 방송의 시작을 알렸다. 관객들과 참가자들은 공연 내내 손을 들고 찬양하며 하나 된 모습을 보였다.

이날의 절정은 캐리 언더우드(Carrie Underwood)가 이전 참가자들과 함께 부른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다. 진행자 라이언 시크레스트(Ryan Seacrest)는 이 무대에 대해 "스튜디오 전체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며 "성령의 임재를 느낀 순간이었다"고 전했다.

언더우드는 인터뷰에서 "참가자들이 반드시 기독교 곡을 선택해야 했던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신앙을 노래했다"며 "전 세계 앞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무대에서는 "나의 죄를 씻기는", "그라티튜드", "아이 캔 온리 기대", "십자가 보혈 앞에" 등 복음의 핵심을 담은 곡들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의 은혜로운 간증도 이어졌다. 매버릭 시티 뮤직의 "이레"(Jireh)로 무대를 연 케일라 리처드슨(Keyla Richardson)은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어주셨다"며 눈물의 시간을 지나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

킨달 인스킵(Kyndal Inskeep)은 찬송가를 부른 후 "우울증과의 씨름 끝에 성령께서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루카스 레온(Lucas Leon)은 "그라티튜드"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을 전했다. 조던 맥컬로(Jordan McCullough)는 "교회는 건물이나 나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했다. 여러 참가자들은 무대 뒤에서 함께 기도했던 시간을 회상하며, 이날 방송이 단순한 경연을 넘어 공동체적 예배의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 같은 '믿음의 노래' 특집은 최근 미국 사회와 교회 안에서 이어지고 있는 신앙과 가치에 대한 논의 속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강혜진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아기도회)마침내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고태형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07:30AM -1부 09:00AM -평일(화-금) 05:00AM
-2부 08:15AM -2부 11:00AM -토요일 06:00AM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김지성 담임목사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연합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 예배 (KM) 오전 10:30 중,고등부 (Youth) 오전 10:30
주일 예배 (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 (College) 오전 10:30
유년부 (K-2) 오전 10:30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초등부(3-5) 오전 10:3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jjoon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니 내 길에 빛이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기도회)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베베(민물고기))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일(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일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형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영양)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오영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i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토)오전 6: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목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크스필드 ANC은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 중요로운 심 오전 9:30
화요일 3:30 기도회 매일 둘째주 오전 10:30 목요일 TEE 영육 Zoom 오후 7:30
목요일 기도회 오전 10:00 한인타운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송금관 담임목사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 (213)393-9136 http://pyongkang.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리니)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목부)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상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침묵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joeu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세신자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제자훈련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금요일예배 저녁 7시
Youth 오전 10:45, 오후 1시 새벽예배 오전 6시(화-금)

김광석 담임목사

라운드락교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T.(512)228-1934 https://www.rkpc.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nwood Ave. Los Angeles, CA 90005
213.383.1230
FREE ESTIMATE-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앓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초강력 정력제 \$70**


3대째 가업 **영성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OP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부활절 연합예배’ 본질 회복을 촉구한다

2026년 4월 5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예배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비판의 목소리를 접하며, 한국교회가 다시금 예배의 본질을 성찰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느낀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십자가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 없다. 부활은 단지 교회 내부의 기념일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복음의 중심 사건이다. 그러므로 부활절 예배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매년 전국 각지에서 드리는 부활절 연합예배는 교회의 연합과 복음의 공공성을 드러내는 귀한 전통이다. 그러나 이번 4월 5일 연합예배와 관련된 여러 장면들은, 과연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한국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되묻게 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행사였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그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건 예배에 있어서 대전제다. 그러므로 결코 다른 어떤 대상이 그 예배의 중심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순서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과도한 찬사와 환호가 이어진 모습은, 예배의 본질과 전적으로 역행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처사였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암살범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로 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것 같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사람의 마음을 훔쳐 초대된 특정 인물에게 넘겨 버리는 듯한 예배의 실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인간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흐를 때, 우리

는 그 본질을 망각하는 무서운 해악을 이반 행사를 주관한 자들은 뼈아픈 자성을 해야 한다. 둘째, 교회의 공적 책임과 영적 분별이 요구된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특히 공교회 행사에서 정치적 요소로 오해받을 수 있는 장면이 연출된다면, 이는 교회의 순수성과 공공성 모두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교회 지도자들은 언제나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거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다. 셋째, 연합의 이름으로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연합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연합은 진리 안에서의 연합이어야 한다. 외형적 연합이나 행사 중심의 연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 연합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연합은 오히려 교회의 정체성을 흐릴 위험이 있다. 부활의 이름으로 부활을 욕되게 하는 정치 행사는 그쳐야 한다.

빛나간 이번 일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질문해야 한다.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

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박은 자들은 당시 누구였는가?” “교회의 연합은 무엇을 위한 목적이었는가?”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복음의 본질을 붙들며 성장해 왔다. 이제는 외형적 규모를 동원한 식상한 과시나 요란한 공연장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걸치레 행사를 반복하기보다, 예배의 본질과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할 때이다.

그런 점에서 부활절은 매년 많은 청중들을 들리로 세워놓고, 일부 교단 주장들이 누가 누가 잘하나 선보이는 자리가 아니다. 게다가 어느 특정한 또는 평소 친한 정치인을 위해 청중들을 연호하게 하는 자리도 결코 아니다. 오직 죽은 영혼, 잠자던 영혼이 봄의 부활처럼 깨어나야 교회가 다시 살아난다는 선언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교회가 더욱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복음 중심의 진정성을 지닌 연합정신으로 되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민돈원 목사
강화 심포니교회 담임



→ 1면 기사<God is good... 미군 ‘한 명도’에 이어서

이번 작전 역시 이러한 체계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적진 깊숙한 곳까지 구조를 감행하는 미군의 방식은 동맹국에는 신뢰를, 적국에는 강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God is good”... 신호에 담긴 의미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구조 신호로 사용된 “God is good”이라는 표현이다. 이 문구는 단순한 암호 문장이 아니라, 미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기독교적 언어이기도 하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구조 대상자가 이 표현을 사용했다

는 점은, 생존에 대한 믿음과 구조에 대한 신뢰가 결합된 상징적 장면으로 받아들여진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가 미군 내부 문화와 미국 사회의 가치관이 맞닿아 있는 지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한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생명과 존엄을 강조하는 사회다. 이러한 인식은 군 조직에도 반영되어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이어진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가치관의 배경에 미국의 기독교, 특히 개신교 전통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성경 속 잃은 양의 비유처럼, 한 존재를 끝까지 찾아 나서는 서사는, 한 명의 병사라도 반드시 구출하려는 태도와 상징적으로 맞닿아 있다

는 것이다.

군사 원칙과 가치의 결함

물론 미군의 구출 원칙은 기본적으로 군사적 필요와 전략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작전에서 드러난 “God is good”이라는 신호처럼, 그 실행 방식과 상징에는 미국 사회의 문화적·종교적 전통이 은연중에 스며들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란 한복판에서 펼쳐진 이번 구출작전은, 단순한 군사 작전을 넘어 “한 명을 위해 국가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으로, 전 세계인의 이목을 미국이라는 나라에 다시 집중시키고 있다.

2026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M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학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aurahello@gmail.com
전화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ea@itsa.edu

강준민 칼럼

상처 난 십자가 나무 위에 핀 부활의 꽃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님은 거절과 버림받음의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처를 몸과 마음에 받으셨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요 19:34).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상처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경험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

상처는 아픔입니다. 상처는 피를 흘리게 합니다. 상처가 깊어지면 고통이 생기고, 치유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극심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께 이토록 혹독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롬 6:23).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는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사람들과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는 끝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길이었습니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치유되었지만, 부활하신 후에도 상흔(傷痕)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처에서 인류의 죄를 씻는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곧 하나님의 피입니다. 구약에서는 속죄를 위해 짐승의 피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피는 죄를 덮을 뿐,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능력의 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상처를 치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경험하셨기에 상처 입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치유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것을 넘어서는 영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요 11:25). 그를 믿는 자는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복된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그 부활의 능력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1:19).

예수님은 상처 입은 십자가 나무에서 피어난 부활의 꽃이십니다. 또한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고전 15:20). 부활의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가진 상처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상처 위에 부활의 꽃을 피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상흔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상처가 우리의 상처를 품고 치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로 다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상처 위에도 반드시 부활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진유철 칼럼

‘케노시스’ 낮아지심과 자기 부인의 예수님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주는 것 같아도 결국 그 관계 때문에 서로 상처와 고통을 주고받게 됩니다. 모두가 타락한 자기중심적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데도 인간으로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2:6-8절)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자기 부인을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나는 복음 안에서 나를 낳고 양육해주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까? 또 내가 복음을 전해주고 양육해주는 영적인 자녀가 있습니까? 슬프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아버지가 없이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안타깝지만 영적 자녀를 찾는 것보다 세상적 교제나 이해관계를 위한 사람 찾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인데도 다스려지지 않은 내면

과 거친 인격으로 좌충우돌 합니다. 당연히 주 안에서 누려야 할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불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녀들 통해 누릴 기쁨을 못 누립니다. 다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독불장군식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늘 자기 맘에 맞는 교회를 찾아 헤매기에 자아가 깨어지는 성숙한 신앙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케노시스’, 낮아지심과 자기 부인을 통해 Not I But Christ를 이루어 새로운 피조물 된 관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영적인 아버지께 주시는 기쁨과 영적인 자녀에게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약 150년간 교회 건물이나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었음에도 강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식사하거나 교제하지 않았었습니다. 주인이 종과 함께 밥을 먹지 않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함께 하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케노시스’, 낮아지심과 자기 부인으로 건강한 관계였기 때문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행 2:46),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부흥과 돌파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도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성찬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 마음 중심에서 ‘케노시스’, 낮아짐과 자기 부인을 이루는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과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살롬!



예수 부활하셨네

산타모니카 한인 교회

예배시간 안내

- 주일 대예배 오전 11:30
- 주일 캠퍼스예배 오후 1:30
- 성경 공부 주일 오후 3:00
- 새벽 예배 (온라인) 오전 5:30 (월~금)

산타모니카 만리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

주소 및 전화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kyung.kim@biola.edu
www.smkc.us

김경렬 담임목사
Dallas Baptist University
Talbot Seminary
Azusa Pacific University
BA, MA, MDiv,
DMin(candidate)

예수 부활하셨네

능히 할 수 있는 믿음 공동체 (막 9:23)

주향교회 JOOHYANG PRESBYTERIAN CHURCH

예배시간 안내

- 주일예배 오전 10:55
- 수요일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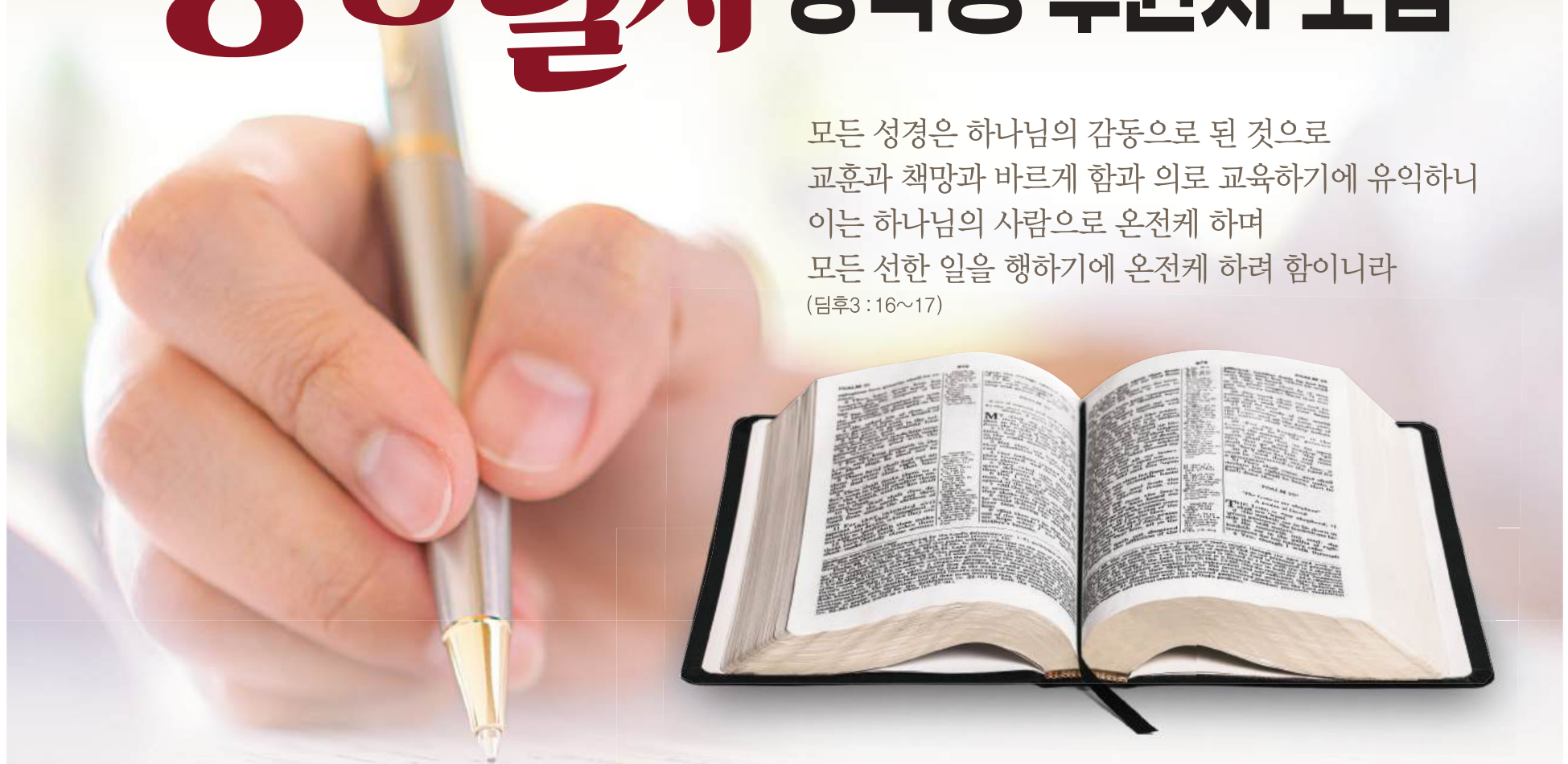
주소 및 전화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F. (213)383-5085
info@joohyang.org

김신 담임목사

성경 필사 **제3기** 장학생 후원자 모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3:16~17)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은 세상의 수많은 미디어와 자극적인 콘텐츠 속에서 마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가 다시 말씀 앞에 서도록 돕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미주 기독교일보는 올해도 신약성경 6권 필사 장학생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로마서까지,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써 내려가며 그들의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돕는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캘리포니아 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까지 총 34명의 장학생이 선정되어 말씀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글을 적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로 인생의 방향을 세우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 장학생 한 명을 세우는 것은 한 인생을 세우는 일입니다.
- ★ 말씀을 붙잡은 다음 세대는 교회를, 가정을, 이 땅의 미래를 일으킵니다.

이 귀한 34명의 장학생들이 흔들림 없이 말씀 안에서 걸어가도록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분들은 이들에게 전달될 장학금 후원자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결단이 다음 세대에게는 한평생 잊지 못할 은혜가 됩니다. 이들의 손끝에서 써 내려가는 말씀 한 줄 한 줄이 장차 이들을 세우는 능력과 생명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귀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 감사합니다.



지난 1기와 2기 장학생들이 고백한 은혜의 이야기

- “필사하는 동안 제 삶이 변했어요.”
-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제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서히, 저는 제가 붙들고 있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 “나는 성경 필사를 통해 희망을 품게 되었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주님과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 “하나님께서 성경과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 아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후원방법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기부금은 세금공제 서류 발급 가능)

CHASE BANK Account #: 611921385
 Routing#: 322271627
 Zelle: chdailyreporter@gmail.com

장학금 **1인당 \$1,000**

문의 : 기독교일보 213-434-1170
 이메일 : chdailyreporter@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기독교일보



주최 : 기독교일보

주관 :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새라 김 칼럼

캘리포니아 ‘젠더 치료’ 예산 2,600만 달러... 뜨거운 찬반 논쟁



새라 김 대표
TVNEXT.org

주류 미디어가 알려주지 않는 “Gender Affirming Care”의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위험 이번 주 초, 캘리포니아 주청사에서는 우리 자녀들과 가정, 교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안전과 발의안들이 연일 공청회를 통해 격렬하게 토론되었습니다. 그중 크리스천들이 주목하고 기도해야 할 첫 번째 안전 중 하나는, 주청사에서 열린 캘리포니아 보건복지 분야 상원 예산 소위원회 제3분기와 하원

예산 소위원회 제1분기에서 논의된 트랜스젠더 관련 재정 확보 안건입니다. 먼저, 4월 6일(월), 저희 TVNEXT와 여러 미국 단체들이 긴급히 참여했던 트랜스젠더 지지 관련 예산 안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Access to Gender Affirming Care for California”에 2,600만 달러(\$26M) 예산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직역하면 “캘리포니아에서 성별 확인 치료 접근성 확대”를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안건은 트랜스젠더들이 성별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의료적 시술 및 절차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안건을 지지하는 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2025년에 발표한 미성년 트랜스젠더 시술 금지 정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별 확인(Gender Affirmation) 시술”이란 생물학적 성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느끼거나 인식하는 성별을 의료적으로 구현하고 이를 인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이 안건은 트랜스젠더 로비 단체들과 민주당 LGBTQ 코커스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장기적인 예산 적자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별 확인 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2,6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할 것을 상·하원 예산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번 토론을 주도한 캐롤라인 멘지바르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LGBTQ 커뮤니티, 특히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공격해왔다. 미성년자에게 성별 확인 시술이 ‘심각한 위협’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쟁점은 무엇인가?** 이 논쟁은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과 세계관의 충돌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중대한 의료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성별은 남성

여성 두 가지라는 입장을 밝히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트랜스젠더 관련 시술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춘기 차단제(puberty blockers), 호르몬 치료, 외과적 수술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대응해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정책에 맞서, 관련 의료 서비스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정부는 저비용 의약품 생산 프로그램인 ‘CalRx’를 활용하여 관련 약물을 직접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연방 정부가 해당 시술을 ‘비필수 의료’로 분류한 데 따른 대응 조치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5년, 보험 적용이 제한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이미 1,500만 달러(\$15M)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안으로, 사회적 논쟁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정책을 넘어, 다음 세대의 가치관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승인 일정, 기도 제목은 TVNEXT.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임상 칼럼

[교회음악 이야기] 헨델의 ‘할렐루야 코러스’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해마다 부활절 새벽이면 각 지역의 교회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민족의 좋은 전통입니다. 이것은 고난주간이 지난 주일 새벽 미명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경배기 위해 연합하여 한자리에 모여서 축하 예배를 드리는 행사입니다. 이때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찬양은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에 나오는 “할렐루야 합창(Hallelujah Chorus)”을 모든 예배자가 찬양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라토리오 메시아(Oratorio Messiah)는 오늘날 크리스마스 시즌의 필수 레퍼토리가 되었지만, 사실 이 곡을 작곡한 헨델(George Fredric Handel, 1685-1759)은 이 작품을 부활절을 위한 헌정곡으로 구상했으며, 초연은 1742년 사순절 기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3부로 나뉘어 있으며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예언과 탄생”, 2부는 “수난과 죽음”,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과 영생”을 다룹니다.

헨델의 생애 중 가장 깊은 시련의 골짜기에 있던 가운데 이 곡을 의뢰받고는 그가 단 24일 만에 이 대작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시기에 하인들이 매일 평소처럼 음식을 가져다주었음에도 그는 거의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한 하인이 헨델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할렐루야 합창’ 악보를 하인에게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내 눈앞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며, 천국을 보여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헨델은 이 할렐루야 합창을 마무리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할렐루야 합창(Hallelujah Chorus)”은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2부 수난과 속죄 부분의 마지막 곡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9:6, 16 그리고 11:15절을 가사로 소재 삼아 곡을 붙인 것입니다. 그 곡을 마무리하며 헨델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진 고난을 이겨내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는 놀라운 기적을 그가 몸소 체험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20세기 복음주의 최고의 설교가요 저자인 존 스토틀 목사님(John Stott, 1921-2011)이 저술한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The Contemporary Christian)”이란 책을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자신의 신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주장 중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다.”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것은 아직도 믿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했던 초기 기독교 교인들은 이에 대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존 스토틀 목사님은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주장에 제기되는 세 가지 주된 질문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풀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첫째는 의미론적 질문입니다.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단지 살아남아 있는 영향력이 아니요, 소생한 시체가 아니요, 제자들의 체험 속에 되살아난 신앙이 아니요, 단순히 확대된 인격이나 성령에 대한 현재의 체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는 “변화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제시된 증거에 따르면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똑같은 정체성을 지니신 동일한 인물이었으나 그 부활로 그는 변화된 영화로운 몸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말 일어났던 일인가? 주님의 부활은 실제 날짜까지 추정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즉 사흘 만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육체적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는 분명 죽으셨고, 장사 지냈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보였습니다.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신 예수님의 그 몸이 변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소생이나, 잔존이 아닌 부활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적실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활은 정말 일어났는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초기 기독교 시대에 복음서 기자를 부인하는 사람들마저도 무덤이 비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야고보, 도마 등등...) 마치 막으로 교회가 출현했습니다. 교회를 세운 장본인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힘없이 처절하게 죽자 모두 흩어져 자기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체가 사라지고, 주님이 나타나시고, 교회가 나타났다는 것은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한데 결합하여 견고한 토대를 만들게 됩니다. 존 스토틀 목사님의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학 이론은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자신이 이루셨던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헨델은 자기 생애에 있어 가장 깊은 나락에 빠져있었을 때 이 할렐루야 코러스를 작곡하며 그리스도 부활의 진정된 실체를 몸소 체험했던 것입니다. “부활과 살 가치가 있는 삶” 사이의 연관성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제시했던 이 찬양을 우리는 가슴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깊이 새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죄 사함과 권능과 궁극적 승리를 확신하고 싶습니다.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문의 1-877-580-2424 사무실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온가족이 함께하는 바이오텍 줄기세포 비즈니스 미션



세 가지를 동시에 이루는 새로운 라이프 비전

Teloyouth Business Mission인가?

- 1. 가족이 함께 일하는 행복**
한 가족, 한 팀
같은 비전과 목적을 향해 함께 성장
- 2. 리더십 & 코칭 시스템**
코치 라이선스 + 워크샵
→ 마음관리 · 리더십 · 영향력 성장
- 3. Business as Mission(BAM)**
비즈니스 현장이 곧 선교 현장
삶과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 나눔

20-30대 TeloPet(텔로펫)

- 세계 최초 반려동물 줄기세포 영양 프로그램
- 한 달 안에 변화를 경험하는 “기적의 회복 사례”
 - 걷지 못하던 반려견이 다시 걷기 시작한 실제 이야기
 - SNS 시대, 차세대 인플루언서를 위한 최고의 기회
 - 12가지 글로벌 품질 인증 · 오가닉 슈퍼푸드 기반

www.TeloHealing.com/pet

젊은 세대에게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블루오션 시장



40-50대 TeloYouth 비즈니스 기회

- 12개월 젊음 회복 프로그램
- 세포 나이를 10년 이상 되돌리는 혁신 기술
- 91% 재구매율 — 강력한 지속 수익 구조
- 독점 세포신호 기술 (Cell Signaling)
- 줄기세포 활성화 최대 36배 가능
- 수만 명의 놀라운 체험 사례
- 권위있는 제3기관들에서의 6가지 임상실험
12가지 글로벌 품질 인증

- 일년안에 월 \$10,000 - \$100,000 가능
 - 빠르게 확장되는 글로벌 비즈니스
- www.TeloHealing.com

60대 최고의노후 준비 “은퇴 플랜”

- 10년 이상 젊어지는 회춘 프로그램
- 12개월 머니백 보장
- 기대 효과
 - 수면 · 에너지 회복
 - 근육 · 뼈 건강
 - 혈당 콜레스테롤 · 혈압
 - 스트레스 · 호르몬 균형
 - 위장 · 뇌 · 시력 건강 등등 온몸의 세포 기능과 구조 그리고 감정까지 회복

- 평생 무료제품이 가능한 마일리지 시스템
- www.teloyouthkorean.com



인생을 바꾸는 3가지 축복의 통합 플랫폼

건강 | 경제 | 리더십

5월달 행사 안내 (예약 필수 · 마감일 4월 26일)



폴 킴
젊음 회복 프로그램 수석코치
텔로 바이오텍 뱀 디렉터

Telo Biotech BAM (Business as Mission) 미팅
온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비즈니스 미션 비전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날짜 : 5월 2일(토) 오후 2시
6820 Orangethorpe Ave, Suite G,
Buena Park, CA 90620

글로벌 줄기세포 비즈니스 설명회

- 날짜 : 5월 9일(토) 오후 2시
(영어로 진행)
6820 Orangethorpe Ave, Suite G,
Buena Park, CA 90620

닥터 초청 세미나

- 날짜 : 5월 16일(토) 오전 9:45
6820 Orangethorpe Ave, Suite G, Buena Park, CA 90620
- 날짜 : 5월 16일(토) 오후 5:00
24341 El Toro Road, Laguna Woods, CA 92637
- 날짜 : 5월 17일(일) 오후 5:00
681 S Western Avenue, Los Angeles, CA90005

문의 : 714-732-8477 Paul Kim (수석코치)



텔로우스

www.TeloHealing.com
www.TeloYouthKorean.com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세상은 변해도, 복음은 변치 않는다

레슬리 뉴비긴 “과학? 진리는 인격적 반응으로만 알 수 있어”



레슬리 뉴비긴은 많은 기독교 저자가 사랑하고 인용하는 인물이다. 폴 웨스턴은 런던의 킹스 칼리지에서 뉴비긴의 사역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때의 연으로 뉴비긴의 책 <변하는 세상에서의 복음> 서문을 썼다.

<더 타임즈>는 레슬리 뉴비긴을 “그의 세대에서 가장 손꼽히는 선교 대가의 한 사람”, “20세기 후반 세계 기독교의 가장 뛰어난 인물 중 하나”로 묘사했는데, 38년 인도 선교 사역 이후 20년간 이어진 저술 활동과 강연 등으로 서양의 선교 신학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특히 아바서원에서 출간한 <변하는 세상에서의 복음(Faith in a Changing World)>은 1994년과 1995년 홀리 트리니티 브롬턴 신학교 초청을 받은 뉴비긴이 강연한 내용으로, <변하는 세상에서 진리 발견하기>와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 숨 쉬는 소망>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나온 것을 폴 웨스턴이 재정돈해 한 권으로 만든 책의 번역본이다.

서문에서 웨스턴은 뉴비긴의 핵심 사상으로 삼위일체 신앙, 교회와 연합, 서구문화의 위기,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실과 가치, 이성과 계시 등을 소개한다. 실제로 이 책엔 뉴비긴의 사상이 잘 드러나 있다.

웨스턴이 구성한 뉴비긴의 두 강 의는 3부로 묶여 있다. 1부는 ‘신앙과 삼위일체’, 2부는 ‘신앙과 교리’, 3부는 ‘변화하는 세상, 변함없는 복음’이다.

처음부터 뉴비긴은 삼위일체 신앙을 강조한다. 그가 주창하는 내용은 독특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런데도 굉장한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가 인도에서 경험했듯, 타종교와 문화 속에서 진리를 모색하는 방식과 기독교의 방식을 비교하면서 오직 기독교만이 삼위일체 신앙을 가르치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신과 세계와 자신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가져다준다고 설득하기 때문이다. 또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시고, 아들을 통하여 자신을 알게 하시며, 성령께서 아들을 보여주심으로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아버지를 보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어서 뉴비긴은 신약성경 기록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데, 철학, 역사, 문화 등을 폭넓게 이해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얻기 위해 방황하고 있고, 오직 성경이 그것에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담담하게 선포한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선교에 힘쓰는 이유는 타종교와 마찬가지로 교세를 확장하기 위함이 아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삼위일체로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었기 때문이고, 헛된 신을 좇는 이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2부에서 교리를 다루면서 뉴비긴은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는가?’에 관한 답을 찾는다. 그는 “이 세계를 만든 궁극적 실재가 하나의 인격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면, 그 인격의 부르심에 대해 인격적 반응을 할 때에만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을 것(113쪽)”이라고 말한다. 매우 흥미로운 변증이다.

실제로 우리는 과학으로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고, 사실로 입증된 것만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뉴비긴이 말한 것처럼 “만일 신의 계시를 지식의 출처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배제시킨다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우주의 목적을 알 수 있는 합리적 지식의 가능성을 모두 배제시킨 셈(234쪽)”이 된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어떻게 알게 되는가?’의 답을 찾기 시작해야 한다.

뉴비긴은 이어서 권위·창조·구원·교회·종말에 관해 세상이 믿어온 역사를 탐구하고, 다양한 사회와 문화가 추구해 온 바를 분석하며, 결국 하나님이 성경으로 계시하신 것에서 답을 찾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함을 계속 강조한다.

뉴비긴은 교회의 하나 됨을 꿈꾸는 인물이다. 가톨릭과 개신교, 오순절 교회가 서로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다른 점은 용납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모든 교리가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건 아니다. 본질적 교리와 비본질적 교리를 나누는 기준이 서로 다를 수는 있어도, 적어도 분별의 차이로 서로 원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다.

하지만 WCC 운동의 한계와 실패를 지켜보면서, 교리적 하나 됨을 추구할 때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훼손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다.

뉴비긴은 또 공공 영역에서 복음이 힘 있게 일하기를 소망한다. 개인 구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고 믿는다. 부정직한 정부에 관한 고발을 듣고 한 주교가 ‘이런 정부가 잘못됐다는 것을 온 영국 시민이 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교회가 정치·사회·문화에 복음을 들고 침투할 때, 이러한 단체 활동이 필요 한지에 관해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하고 단정하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자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책임이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단체 활동을 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변하는 세상에서의 복음>은 필자가 접한 레슬리 뉴비긴의 첫 책이다. 한편론 선교를 향한 뉴비긴의 열정, 서구 문명과 역사를 파고드는 탁월한 분석력과 기독교 복음이 해답이라는 것을 진실로 믿고 설득하는 신념과 담담함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말하는 복음이 스펙트럼이 넓은 기독교가 모두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인지,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으로 계시하신 복음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당신을 계시하신 성경의 지식을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참 복음이 무엇인지 알면 그것이 공공 영역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도 더 명확히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은 변한다. 그러나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역사·사회·문화에 따라 복음에 새로운 옷을 입힐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도적 복음, 성경에 기록된 그 복음을 더 순수하게, 더 분명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변하는 세상에서의 복음

레슬리 뉴비긴 | 홍병룡 역
아바서원 | 284쪽
15,000원

레슬리 뉴비긴이 1998년에 사망했을 당시 「더 타임즈」는 그를 “그의 세대에서 가장 손꼽히는 선교 대가의 한 사람” 이자 “20세기 후반 세계 기독교계의 가장 뛰어난 인물 중 하나” 로 묘사했다

그는 이성의 시대에 교회의 선교적 도전에 대한 사상적 틀을 제공한 사상가이며,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여 기독교 진리를 증거하는 선지자였다

이 책은 뉴비긴의 마지막 강의를 엮은 책으로, 뉴비긴의 사상과 신학 전반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는 입문서라고 할 수 있다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Restore us to Yourself, LORD, that we may return; renew our days as of old
LAMENTATION 5:21

-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 -
여호와여 우리를 강하게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강하게 돌이키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영겁적 갈래가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출가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예수 부활하셨네

LA 백송교회

<주일온세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어린이성경공부> 오후 1:30
<평일 영혼의샘예배> 화~금 오후 7:30
토 오후 3:00
<백송찬양대> 주일 오후 1:15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김성식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 화~목 오전 6:00
토 오전 7:00
금요찬양집회 오후 7:30

511 S Loara St., Anaheim, CA 92802
T.(714)772-3100

이봉하 담임목사

토랜스조은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가명훈 담임목사

OC 한인여성목사회

회장 한수지 목사
이사장 수잔부커 목사
부회장 이복현 목사
총무 권성연 목사

회장 한수지 목사

He is Risen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서성록, 한 점의 그림] 이규호의 달맞이꽃

영적 시선으로, 달과 식물을 바라보다

달맞이꽃, 주님 기다림 소망해 아들 치유 경험하고 세례 받아 신앙, 삶과 예술 속속들이 영향 일생 행로 바꾸게 된 중대 사건

이규호(1920-2013)는 일제시대 태평양미술학교(太平洋美術學校)를 졸업하고 귀국했다. 태평양미술학교는 유럽 유학과 교수진으로 구성된, 남관, 이인성, 손응성, 최영립 등을 배출한 학교였다.

부푼 꿈을 안고 귀국했지만, 그는 한동안 마음을 잡지 못했다.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는 총독부의 착취와 탄압이 극에 달했고, 해방 이후의 정국 역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돈의 연속이었다.

이규호는 1946년 조선예술동맹에 가입했으나, 그 후속 조선미술동맹 결성으로 좌익의 정치색을 드러내자 탈퇴했고, 1947년 제작양화협회를 결성했다. 그 후 정치성을 배제한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1950년 미술협회가 결성되어 참여했으나, 그마저도 전쟁 발발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규호는 전쟁 후 인천여고와 동덕여고에서 미술교사로 교편을 잡으며 화가의 길을 갔다. 그의 활동은 사회가 안정되면서 빛을 보기 시작했다. 그의 적극적 행보는 미술단체 가입과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는 1956년 한국관화협회 창립에 참여했다.

이 단체에는 박수근, 최영립, 장리석, 이상욱, 변종하, 정규, 임직순, 유강열, 이항성 등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규호는 협회 정기전에 빠짐없이 출품했다.

또 작가는 조선일보사 주최 <현대작가초대전>에 관화를 출품했는데, 이때 출품작에 대해 최영립은 “이규호 씨는 색깔을 쓰지 않고 평면적이면서도 검은색과 검은 맛으로 동양

적인 화풍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평했다(최영립, “국제화단의 신예들”, 조선 1962. 4. 8).

새로운 매체에 관한 관심은 1956년 한국수채화협회전에서도 알 수 있다. 고화흠, 임직순, 류경재, 이종무, 이준, 장리석, 최덕후 등과 함께 수채화 확산에도 힘썼다.

이규호가 관화나 수채화를 위주로만 작품 활동은 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주종목은 전통 매체인 유화였다. 그는 침체한 미술 문화를 일으키고자 창립된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에 몇 차례 유화 작품을 출품했다.

가장 이른 시기에 출품한 것은 1954년에 개최된 제3회 국전이며, 이어 1958년 제7회 국전, 1959년 제8회 국전에도 유화를 출품했다. 한국관화협회나 국전, 현대작가초대전은 한국의 현대미술에 토대를 만드는 데 일조한 전시였다.

특히 국전이나 현대작가초대전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었음에도 유망한 작가를 발굴하고 우리나라의 예술적 역량을 높이도록 지원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규호는 주요 전시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조형 언어를 조율하고 미처 실현하지 못한 예술적 꿈을 펼쳐갔다.

이규호의 작품세계는 대략 세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종교적 성격의 작품이고, 둘째는 향토적 정취를 나타낸 작품이며, 셋째는 달맞이꽃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먼저 종교적 성격의 작품들은 <십자가와 호롱불>(1957), <유혹>(1980), <예수>(1980), <부활>(1985), <알파와 오메가>(1994-95) 등이 있다. 이 유형의 작품들은 창조와 그리스도의 오심, 십자가에 달리심과 부활하신 그리스도 등의 서사를 담고 있다.

둘째는 향토적 소재를 담은 작품이다. 이규호의 작품세계를 흔히 ‘향토적 정취’의 표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실제로 그의 그림을 보면 고궁이나 사찰, 장날, 석담, 목어, 옛 성문, 도자기를 나르는 여인 등을 볼 수 있다. 일제 치욕을 경험한 세대로서 한국적인 것에 애착이 컸고, 우리 문화 유산을 지키고 전통미를 이어가려는 바람이 섞여 있다.

셋째 달맞이꽃을 소재로 한 다양한 시도이다. 작가는 2008년 ‘미술세계’와 가진 인터뷰에서 달맞이꽃을 그리게 된 사연을 밝힌 바 있다.

그가 달맞이꽃을 그리게 된 계기는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근무할 당시 우연히 퇴근하던 길에 노란 야생꽃을 본 적이 있는데, 달맞이꽃의 청초한 아름다움에 매료돼 그 후로 줄곧 달맞이꽃을 그리게 되었으며, 달맞이꽃을 그리려면 반드시 달이 있어야 하고 반대로 달을 그리려면 달맞이꽃이 있어야 한다고 달맞이꽃에 관한 제작 경위를 설명했다.

그의 달맞이꽃은 사실적 형태

로 제작된 것, 모자이크식으로 구성된 것, 무희가 춤을 추듯 리듬감을 살린 것, 여러 색면으로 직조된 것 등 여러 형태로 변주하면서 그의 작품의 중심 주제로 삼았다. 나이프로 물감을 긁거나 닳붙이고 다듬는 과정, 물감이 마르기까지 기다리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작가는 만년까지 이 주제를 깊이 탐구했다.

이런 달맞이꽃 그림을 보며 이경성은 ‘자연에 대해 깊은 애정’을 지닌 작가로 평했으며, 이구열 역시 같은 흐름에서 ‘자연미 찬가의 시인’으로 불렀다. 달맞이꽃을 ‘식물의 기록’이거나 ‘식물에 대한 감흥의 표시’로 해석한 것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두 평론가의 시각은 그의 회화 세계를 아우르지 못하고 단지 한 측면을 본 것에 머무른다.

과연 그의 관심이 달맞이꽃의 자태와 그 아름다움에 관한 관심 뿐이었을까? 이규호와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음에도, 그들이 작가의 핵심 의도를 놓쳤다는 사실이 의아하게 느껴진다.

달맞이꽃은 아름다움으로 치면 양귀비꽃이나 한련화, 패랭이꽃보다 덜 아름답다. 그보다 아름다운 꽃은 예상 외로 많다. 달맞이꽃이 아름답다고 한다면, 그것은 꽃말처럼 ‘인내하는 미덕’에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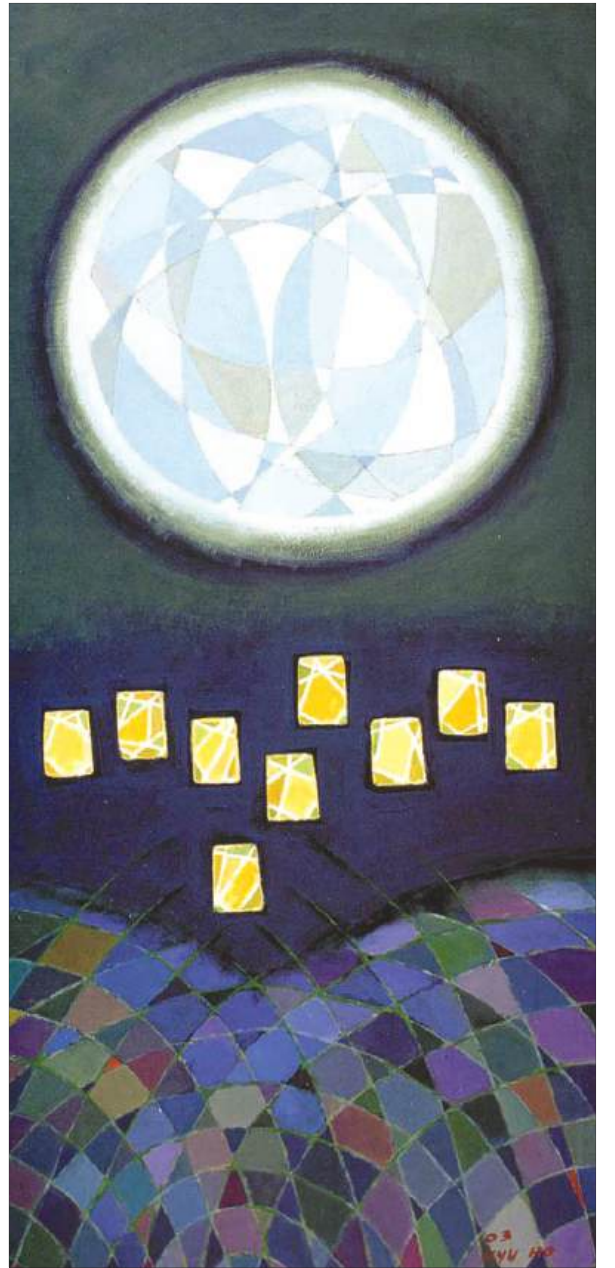
이규호 작가의 아들 이종훈은 필자와 대화에서 “아버지가 달맞이꽃을 그린 것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을 나타낸 것”이라고 했다.

이규호는 전쟁 직후 아들이 병들어 크게 낙심하고 있었을 때 치유를 경험하고 나서, 평생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자신뿐 아니라 집안 전체가 기독교 가정이 되었다고 한다.

단순히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그의 삶과 예술까지 속속들이 영향을 미친 실질적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병약한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 곧 이규호의 은혜 체험과 회심은 자신의 일생 행로를 바꾸게 된 중대한 사건이었다.

달과 달맞이꽃의 관계는 작품을 보는 새로운 렌즈를 제공한다. 그에게 두 요소는 비가시적 세계를 끌어내기 위한 상징물이었다. 달맞이꽃은 너무나 ‘달님’을 사모해, 밤이 오기만을 기다린다. ‘달님’이 오실 때야야 덩달아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 달과 달맞이꽃이 한데 엉켜 무엇이 달이고 꽃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된다. 그리하여 이제 화면은 축제의 폭죽이 터지는 기쁨의 무대를 연상시킨다.



▲이규호, 달과 달맞이꽃, 59x122cm, 캔버스에 유채, 2003.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 일상에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듯이 그의 그림에서 꽃과 달은 하나로 통합된다. 달맞이꽃과 연관한 이런 이야기는 작가가 달맞이꽃을 향토적 정취를 내기 위해 기용한 것이라거나 자연주의적 시각에 입각해 있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오히려 그는 자연의 이미지라는 렌즈를 통해 초자연적 담론, 곧 갈망과 기다림, 구속과 연합과 같은 심오한 이야기를 조명하고자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규호는 1960년대 초부터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근무하면서도 학예사로서 작품 수집과 소장을 담당하였다. 현재 고려대박물관의 근대미술품은 그의 손을 거친 것인데, 국립현대미술관이 태동하기도 전에 주옥같은 미술품에 주목하고 보존하도록 도왔다. 한 예술가의 높은 안목이 박물관의 위상을 높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2024년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 <이규호 화백 회고전>은 10주기를 맞아 그분의 사회적 공헌과 예술 세계를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서성록 명예교수(안동대 미술학과)



▲이규호, 달과 달맞이꽃, 72.7x90.9cm, 캔버스에 유채, 1992.

담임목사 청빙 공고

남가주 샬롬교회는 15년 전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캘리포니아 토렌스에 위치한 장로교단(PCA) 소속 교회로서 현재 담임목사님의 정년 은퇴 일정에 맞추어 목양 / 선교 및 다음세대를 위한 목회 비전을 가지고 섬기실 제2대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 합니다.

1. 자격요건

- 1) 정규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신 분
- 2) 목회 경력 5년이상 이신 분
- 3) 미국 장로교(PCA)교단 가입에 문제 없으신 분
- 4)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5) 한국어와 영어로 의사 소통이 가능 하신 분

2. 제출 서류

- 1) 이력서 / 최종 학력 증명서 / 목사 안수 증명서
- 2) 목회 비전 및 본인과 가족 소개서(신앙간증 포함)
- 3) 최근 한국어 설교 동영상 2편(website link도 가능)
- 4) 추천서 2부

3. 기타사항

- 1) 이메일: Shalomsearch@yahoo.com 서류는 e-mail로만 받습니다.
- 2) 서류가 제출되는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청빙이 완료된 후 마감 합니다.
- 3) 서류 제출과 질문은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 4) 서류 심사후에 개별 통지하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5)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6)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최종 결정이후에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남가주 샬롬교회 (Shalom1004.com)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부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는 힘”

그는 또한 '빌드업코리아' 행사 당시 한국교회와 2026년 부활절을 맞아 5일 연합예배를 드리며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했다.

“새 생명과 다시 일어설 힘 주시는 진리”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정석 목사, 한교총) 회원교단들이 중심이 된 '2026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생명의 부활, 한반도의 평화'라는 주제로 국내 73개 교단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됐다. 이 예배에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우원식 국회의장, 정정래·장동혁 여야 대표들도 참석했다.

전체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축하·결단으로 구성됐다. 예장 통합 부총회장 권위영 목사가 인도한 예배에선 김정석 목사(한교총 대표회장, 기감 감독회장)가 '부활 생명'(요한복음 20:19-23)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 가지 차원에서 조명했다. 부활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을 가져오는 사건이며,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사건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김 목사는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분열에서 화해와 하나 됨으로 인도한다”며 한국교회의 연합과 사회적 화해를 촉구했다.

예배에선 광림교회와 여의도순복음교회 연합찬양대가 '할렐루야' 찬양을 드렸고, 신길찬양단이 봉헌 찬양을 맡았다. '부활·평화·사랑·섬김'의 네 가지 주제로 진행된 특별기도 순서에선 최형영 목사(나성 총회감독), 정기원 목사(그교회교역자 총회장), 안상운 목사(예장 호헌 총회장), 신용현 목사(예장 개혁개신 총회장)가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안성우 목사(기성 총회장)가 통성기도를 인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부활절 연합예배는 우리 사회에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늘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이어 “오늘날 우리는 여러 도전과



2026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5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연합예배 준비위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세계를 지탱해 오던 평화와 번영의 질서는 약화되고 연대와 화합이 아닌 갈등과 다툼이 심화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전세계 경제가 심각하게 출렁이고 있다. 회복 국면에 있던 우리 경제도 그 영향을 직접 받고 있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이웃들은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부활의 능력과 함께 오늘의 주제인 평화와 사랑의 의미를 다시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서로를 향한 사랑과 연대의 약속이 바로 오늘날 부활이 우리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며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께서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길을 환하게 밝혀주셨다. 앞으로도 기도로 함께해주시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대회장인 이영훈 목사(기하성 대표회장)는 대회사에서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살아있는 진리”라며 “한국교회가 국민 대통합에 앞장서며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이 시대 속에서 희망의 빛이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세워

지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준비위원장 엄진용 목사(기하성 부총회장)는 “막힌 답을 허무시는 예수님의 부활이 남북한 복음통일을 은혜로 가져다주시기를 기도한다”고 했으며, 준비위원장 김일엽 목사(기침 총무)는 “서로의 다름을 넘어 하나의 몸으로 모인 교회의 연합이 곧 부활의 증거”라고 전했다.

소감식 목사는 환영사에서 “부활의 축복은 우리들끼리만의 이니셔티브의 축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부활의 메시지는 이 시대의 절망을 넘어서는 소망이 되어야 하고, 분열을 넘어서는 화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우리,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한기총)도 같은 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순복음원당교회에서 '부활절 감사예배'를 드렸다.

순복음원당교회 찬양단의 부활절 칸타타 공연 후 엄하석 목사(예하성 총회장)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선 우선 한기총 대표회장인 고경환 목사(순복음원당교회 담임)가 환영사를 전했다.

고 대표회장은 “이번 한기총 부활절 감사예배 주제는 '부활·통합·희망'이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제라 생각한다”며 “지금 전 세계는 전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또한 진영 논리로 지금 대한민국은 다투고 나누었으며 갈등 가운데 있다. 이러한 때에 부활은 희망의 빛”이라고 했다.

그는 “부활은 다툼과 갈등으로 인한 아픔을 치유하며 하나로 품는 통

합의 빛”이라며 “한기총 부활절 감사예배가 이념과 지역, 정치적 갈등을 넘는 계기가 되길 소원한다. 나아가 세계가 전쟁과 다툼이 아닌, 평화와 대화, 더불어 사는 곳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예배 대표기도는 강기원 목사(예장 목양 총회장)가 드렸으며, 박홍자 장로(명예회장)의 성경봉독 후 임다윗 목사(공동회장, 총만한사랑나눔 대표)가 '부활 신앙'(로마서 8:9-17)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임 목사는 “예수님의 부활은 천지개벽, 경천동지할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이라며 “왜냐하면 타락한 모든 인간은 사망권세, 지옥세력에게 철저히 짓밟히고 농락당해 왔기 때문이다.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잡혀 도적질당하고 죽임당하고 비참하게 유린당해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 목사는 “그러나 참하나님이시며 참의인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인류의 죄값을 완전히 갚으셨다”며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망권세, 사탄의 세력을 짓밟고 부활하셨다”고 했다.

그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속죄받고 성령으로 증생한 사람은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과 함께 사탄과 사망의 세력을 이긴 승리자요, 성령의 부활생명을 소유한 복된 자”라고 했다.

임 목사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부활의 능력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죽음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짓밟으며 살자”며 “불안, 근심, 공포, 미움, 증오, 무기력, 놀림, 우물 등 어둠의 세력을 깨부수며 살자. 매 순간 부활의 권능을 덧입자. 이를 통해 늘 자유, 평강, 기쁨, 행복이 충만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자”고 전했다.

이어 박종만 목사(예장 합동한신 부총회장)의 내빈소개가 있을 후 문체부 김영수 차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빈번해진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다. 중동 전쟁은 세계 각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며 글로벌 경제에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직

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 우리 이웃들은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소망인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와 새로운 내일에 대한 희망을 전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자”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천환 목사)은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선 목사), 한국기독교인총연합회(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전국기독교총연합회(이사장 엄신형 목사)와 함께 이날 오전 6시 군포제일교회(담임 권태진 목사)에서 '2026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새벽예배'를 드렸다.

이선 목사는 대회사에서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로 들어온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로 인해 한국교회가 태동했고, 두 분 선교사로 인해 이 땅에서 부활절연합예배가 시작됐다”며 “이런 역사적으로 뜻깊은 날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참석한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환 목사는 부활절 공동메시지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사를 만에 부활하사 믿는 자들에 구원의 증표가 되셨다”며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의 확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고백한다”라고 했다.

또 “한국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 끝날까지 증거하기 위해 부름 받은 선교공동체다. 그런 한국교회가 지금 분열과 분파주의라는 벽에 가로막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조차 각각 따로 드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을 저해하는 우리 안의 쓴 뿌리를 캐내고 초대교회의 순수한 복음 열정으로 돌아가 한 자리에서 한목소리로 주님의 부활을 소리높여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라고 전했다.

축사를 전한 엄신형 목사는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역사적인 날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괴롭혔던 죄가 다 해결됐고, 사망과 저주가 물러갔기 때문”이라며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학생모집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교**
 B.th, Th.M, M.Div, D.Min, Th.D **coafs-07-388665**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신학박사 인가 대학은 3곳뿐입니다.**
 ■ 학교운영하실 분 \$7만불 (신학철학책 1만권 포함)
 ■ 나성중부교회 김 호 박사 / 캘리포니아 디렉터
213-507-1933

김영길 목사의 가슴으로 읽는 성경
 지친영혼을 깨우는 아침 10분 처방전 **규알코드 촬영 후 구독신청해 주세요**
 영혼을 위한 아침 처방전(Morning Prescription)
 [복용법] 매주 월/수/금 아침, 출근길이나 조용한 시간에 복용하세요.
 [효능] 불안 완화, 마음의 편안, 영적 회복
 Youtube.com / @Youngkimgamsa

문선영의 머니토크
내가 죽으면 한푼도 남는게 없는 어뉴이티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재정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네 학생님들 반갑습니다. 아 정말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요지는 내가 사망하고서 따박 따박 나오던 어뉴이티 연금만만 안나오면 와이프는 어떻게 되느냐 인데요, 다행히도 대안이 있습니다. 선생님과 와이프 두 분의 이름으로 어뉴이티를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계약을 조인트 어뉴이티라고 하는데, 혼자서 가입하시는 것과 가입절차는 똑같습니다. 만약 두 분 중 한분이 사망해도 남아 계시는 분에게 지속적으 같은 금액이 마지막 한분이 사망할 때 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혹시 사망하면, 우리 와이프는? 이라는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지요. 이런 조인트 어뉴이티가 부부 모두에게 혜택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 당연히 단점도 존재하겠지요. . 부부 공동으로 조인트 어뉴이티에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과 와이프의 나이에 따라서 계획이 달라지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다시한번! 나이에 따라 그리고 나이 차이에 따라 금액은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한 분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싱글 어뉴이티와 달리 매달 따박 따박 지급되는 금액은 한 75%-80%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전체 자산 상황에 따라 그리고 두 분의 건강에 따라 이런 조인트 어뉴이티를 가입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인트 어뉴이티는 내가 통털 상황에 처할 지, 내 와이프가 통털 상황에 처할 지 정말 알 수가 없는데 이것도 대비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리는데요, 어느 한분이라도 통털 케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받으시는 금액의 1.5배가 지급이 되고요, 원금을 다 쓴 후에는 다시 원래 지급했던 대로 금액이 돌아가서 두 분 모두 사망할 때 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분 중 어느 한분이라도 통털 케어 상황이 보다 많은 인컴 혜택을 보고 싶으시면 이 조인트 어뉴이티를 고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리시나요? 그러니까 전화나 문자로만 아니라, 직접 만나보고 학생님의 상황을 좀 더 들려주시고 자세하게 맞춤형의 플랜이 나오도록 하는게 중요하겠지요. 약은 약사에게 그리고 진료는 의사에게 하듯이 재정상담과 은퇴 플랜은 문선영의 머니토크와 하시면 됩니다. 어뉴 선영과 저희 매니저님들이 제일 이터널 비록한 은퇴 플랜은 저 문 잘하십니다.

4월 FINANCIAL LITERACY MONTH 시리즈 세미나 (2) 재정전문가 도전기
문선영의 머니토크와 함께 일할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 60대 은퇴했지만 쉬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
 • 현 직장으로 인컴과 비전이 부족한 형편
 • 아이 키우고 나니 카리어를 생각 중
 • 미국에서 재정전문가를 꿈꾸시는 분
 재정 전문 에이전트 선명희와 인터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월 10일 (금) 저녁 7시
 3435 Wilshire Blvd. 14FL, Los Angeles, CA 90010
 참가 및 인터뷰 신청은 626-827-9599로 문의하세요.



예수 부활하셨네

예배시간 안내

1부 예배 오전 7:30
2부 예배 오전 9:30
3부 예배 오전 11:30

YDC한어대학청년부
4부예배 (청년대학부) 주일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Email: admin@thanksgivingchurch.com
T. (714)521-0991 Fax: 714-521-4636
http://thanksgivingchurch.com/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감사한인교회
THANKSGIVINGCHURCH



부활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교회
www.gcj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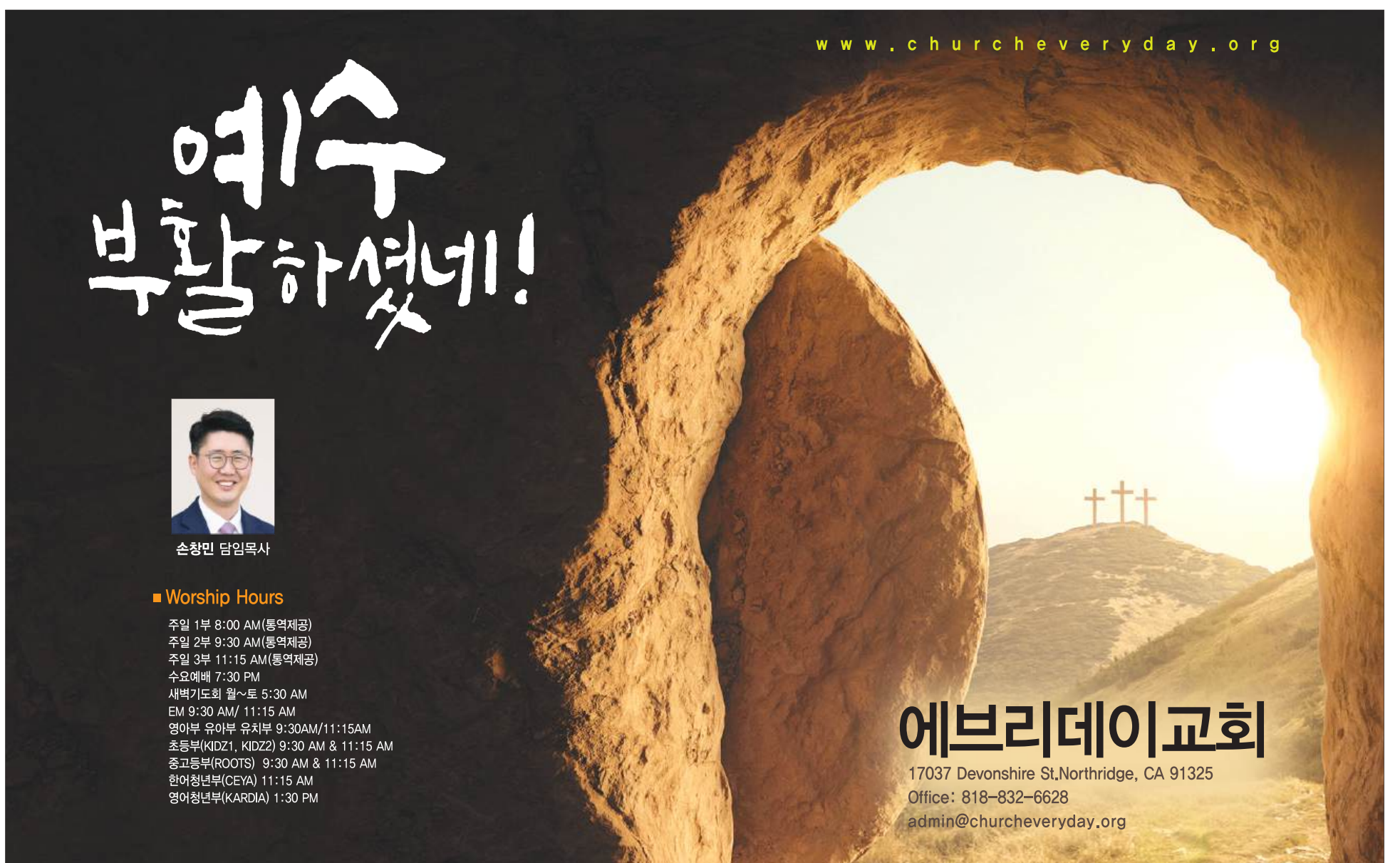
신승훈 담임목사

WORSHIP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1부	8:00am
주일예배 2부	10:30am
주일예배 3부	1:00pm
주일예배 GCEM 10:30am	1:15pm
주일예배 라티노(스페인어)	5:00pm
교구모임 TEAM(20대 청년)	1:00pm
교구모임 JABEZ(30대 청년)	1:00pm
수요예배	7:30pm
금요일예배	7:30pm
새벽예배(월~토)	6:00am


주님의 영광교회
Glory Church of Jesus Christ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EL: (213)749-4500
E-Mail: glorygcjc@gcjc.org



www.churcheveryday.org

예수 부활하셨네!



손창민 담임목사

Worship Hours

주일 1부 8:00 AM(통역제공)
주일 2부 9:30 AM(통역제공)
주일 3부 11:15 AM(통역제공)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월~토 5:30 AM
EM 9:30 AM/ 11:15 AM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9:30AM/11:15AM
초동부(KIDZ1, KIDZ2) 9:30 AM & 11:15 AM
중고등부(ROOTS) 9:30 AM & 11:15 AM
한어청년부(CEYA) 11:15 AM
영어청년부(KARDIA) 1:30 PM

에브리데이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Office: 818-832-6628
admin@churcheveryday.org